

50+커뮤니티 운영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이서연 조규형 이주현



50+커뮤니티 운영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이서연 조규형 이주현

책임연구원 **이서연**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공동연구원 **조규형**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개발실**

연구보조원 **이주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석사과정**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요약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0+세대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실제 조사 결과 문화·여가 향유 수준이 낮고 사회 참여 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50+세대의 커뮤니티 활동은 50+세대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 향상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증가, 신뢰 증대 등 사회통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각 캠퍼스에서 시행하는 커뮤니티 사업의 지속과 활성화는 50+세대의 개인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결성된 50+커뮤니티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

- 연구 대상: 서울시 50+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소속 커뮤니티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등록된 커뮤니티
- 연구 범위: 커뮤니티 Data Base 구축, 커뮤니티 활동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커뮤니티의 양적/질적 활성화에 대한 의견 수렴, 커뮤니티 운영·상 개선 방안 도출

□ 50+커뮤니티 운영 현황 분석

○ 조사 개요

구 분	본 조사
모집단	• 2016, 2017, 2018년도 상반기 기간 동안 50+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단체(커뮤니티) 374개(중복 제외)
표본추출방법	• 전수 조사 (전체 374개 중 70%이상 응답 목표(약 262개))
표본 크기	• 268개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Online-Survey) (일부 대면면접조사 및 전화조사 병행)
조사 대상자	• 커뮤니티 대표 (대표의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총무)
조사 기간	• 2018년 10월 18일 ~ 11월 8일(총 23일간)
조사 기관	• 주관: 서울특별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실사 및 자료 처리: 입소스 주식회사(Ipsos)

○ 조사 내용

- 커뮤니티 기본 정보: 결성 시점, 회원 수, 총 참여 횟수 등
- 커뮤니티 지속과 중단: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및 활동 중단 사유
- 커뮤니티 구성원: 회원 수, 회원 간 관계
- 커뮤니티 활동 및 운영: 결성 계기, 활동 빈도, 활동 지역 및 내용, 회원관리, 경비 및 지원금, 커뮤니티 운영 관련 애로사항 등
- 커뮤니티 이후 삶의 만족도
- 50+커뮤니티 활성화의 의미와 지향점 등

○ 응답 커뮤니티 특성

(n=268,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비율
참여 연도별	2016년	77	28.7
	2017년	117	43.7
	2018년	74	27.6
참여 캠퍼스별	서부	154	57.5
	중부	81	30.2
	남부	33	12.3
참여 횟수	1회	207	77.2
	2회 이상	61	22.8
참여 유형별	2018년도 참여 중	106	39.6
	2018도 비참여, 모임활동 지속	98	36.6
	커뮤니티 활동 중단	64	23.9
회원 규모별 (현재)	10명 미만	117	43.7
	10명 이상	87	32.5
	비해당(소멸)	64	23.9
결성 계기별	50+캠퍼스 이용자	90	33.6
	50+센터 활동 커뮤니티	39	14.6
	50+재단과 상관없음	75	28.0
	비해당(활동 중단)	64	23.9
커뮤니티 유형(결성초기)	일	23	8.6
	문화	55	20.5
	학습	66	24.6
	사회 공헌	60	22.4
	비해당(활동 중단)	64	23.9
커뮤니티 유형(현재)	일	32	11.9
	문화	54	20.1
	학습	53	19.8
	사회 공헌	65	24.3
	비해당(활동 중단)	64	23.9
전 체		268	100.0

○ 커뮤니티 결성, 지속 및 활동 중단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이 시작된 2016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결성된 누적 커뮤니티 수는 총 447개이며, 중복 참여한 커뮤니티를 제외하면 총 412개임.
- 2016년에 서부캠퍼스에서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커뮤니티는 총 92개로, 그중 연장 신청을 한 커뮤니티는 22개(22.2%)였고, 2017년에는 166개 커뮤니티 중 34개(20.4%)가 연장 커뮤니티로 선정됨.
- 2016년과 2017년에 결성되었던 커뮤니티 278개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2년 연속으로 참여한 커뮤니티는 29개(10.4%), 3년 연속으로 참여한 커뮤니티는 3개(1.1%)였고, 기 결성된 커뮤니티의 88.5%는 익년도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음.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를 중단한 이후 커뮤니티의 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를 중단했다고 응답한 162개 커뮤니티 중 60.5%인 98개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는 중단했으나, 커뮤니티 활동은 지속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여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을 계기로 커뮤니티가 결성된 이후 자체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커뮤니티가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커뮤니티 활동 빈도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커뮤니티들이 활동을 위해 모임을 갖는 횟수는 월평균 3.25회임.

○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 타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의 필요 정도는 5점 만점 중 3.65점,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필요 정도는 5점 만점 중 3.55점으로, 다른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이나 자원 등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류하고자 한다는 응답이 58개(52.7%)고 가장 많았으며,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 및 커뮤니티 활동의 발전을 추

구한다는 응답이 27개(24.5%)로 그다음을 차지함.

○ 커뮤니티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

- 커뮤니티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서부캠퍼스’가 32.1%(94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부캠퍼스’ 24.2%(71개), ‘도심권 50+센터’ 13.7%(40개), ‘남부캠퍼스’ 10.2%(30개), ‘동작 50+센터’ 5.8%(17개), ‘영등포 50+센터’ 5.5%(1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캠퍼스(서부, 중부, 남부)에서 시행하는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커뮤니티임에도 실제 커뮤니티의 활동 기관은 캠퍼스뿐만 아니라 50+센터 및 기타 기관으로 다양했음.
- 이는 서울시 50+센터에서 결성된 커뮤니티들이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캠퍼스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서울시50+캠퍼스에서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주지와와의 접근성이나 공간 사용 등의 이유로 활동은 타 기관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 커뮤니티 활동 유형

- 결성 초기 커뮤니티의 유형 분포는 ‘학습’이 32.3%(6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 공헌’ 29.4%(60개), ‘문화’ 27.0%(55개), ‘일’ 11.3%(23개)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 커뮤니티 204개 중 37개는 활동 중 커뮤니티 유형의 변화가 있었는데, 결성 초기 대비 현재 변경된 커뮤니티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회 공헌’이 37.8%(14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 27.0%(10개), ‘문화’ 21.6%(8개), ‘학습’ 13.5%(5개) 순으로 나타남.

○ 커뮤니티 구성원

- 개별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회원 수는 평균 11.5명이었으며, 이 중 커뮤니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은 평균 7.9명이었음.
- 신규 회원을 받고 있거나 향후 가입을 허용할 예정인 커뮤니티가 각각 78개 (38.2%), 88개(43.2%)로, 향후 신규 회원가입을 받으려는 이유로는 ‘커뮤니티 활동의 확대’가 88.6%(78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갈등

- 커뮤니티 구성원과 갈등 상황을 겪었던 경험이 있는 커뮤니티는 38.7%로, 커뮤니티 10개 중 약 4개는 커뮤니티 구성원과 갈등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커뮤니티 내 갈등 이후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가 45.6%(36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갈등을 초래한 회원이 탈퇴하였다’ 26.6%(21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아직까지 갈등 상황에 있다’ 16.5%(13개), ‘다른 회원의 중재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 8.9%(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성원 간 갈등 이후 갈등이 해결된 비율이 54.5%,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여전히 갈등 상황에 있거나 회원이 탈퇴한 비율은 43.1%로 나타남. 즉,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는 커뮤니티의 비율도 높아 커뮤니티 구성원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커뮤니티 운영 경비 및 지원금

- 커뮤니티 모임의 1회 평균 지출 비용은 5.7만 원으로, 커뮤니티 플러스 지원금을 제외한 커뮤니티 운영경비 조달 경로를 살펴보면, ‘필요시마다 회원으로부터 각출’이 80.4%(164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회원 가입 시 가입비 납부’ 8.3%(17개), ‘정기회비’ 3.9%(8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수령’,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수익사업 운영’, ‘부족하지 않게 계획대로 사용’ 각 2.5%(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여비나 식비, 다과비 등에 해당하는 ‘운영비’가 49.7%(101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커뮤니티 운영 애로사항

- 커뮤니티 운영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활동 내용 개발’이 31.4%(64개)로 가장 높은 비용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커뮤니티 비전 설정’ 23.0%(47개),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인간관계’ 18.6%(38개), ‘회원 모집’ 9.3%(19개), ‘강사 섭외’ 6.4%(1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커뮤니티 운영 상의 애로사항은 참여 횟수별로 다소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경우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커뮤니티 활동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커뮤니티 참여 회차가 많아 활동 내용이 누적되면 커뮤니티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활동 내용과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음.

○ 커뮤니티 활동 이후 삶의 만족도

- 50+커뮤니티 활동 이후 삶의 만족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정신건강 만족도’가 4.0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관계 만족도’ 3.98점, ‘신체 건강 만족도’ 3.7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경제적 만족도’는 3.08점으로, 4개 영역 중 가장 낮았음.

○ 커뮤니티 활동의 의미

- 50+커뮤니티 활동의 의미 동의 정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개인적 발전’ 및 ‘사회적 결속’이 각 4.1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체적인 삶’ (4.08점), ‘친목 도모’(4.05점), ‘적극적인 사회 참여’(4.0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커뮤니티 활동의 의미와 지향점

- 50+커뮤니티 지속이나 활성화 위한 필요 정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친목: 회원 간 관계가 원만하다’가 4.1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미: 커뮤니티 활동이 재미있다’(4.14점), ‘보람: 커뮤니티 활동으로 보람을 느낀다’(4.13점), ‘배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는다’(4.1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본 50+커뮤니티의 지속이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해 현재 50+커뮤니티 운영평가를 5점 만점으로 질문한 결과, ‘친목: 회원 간 관계가 원만하다.’가 4.1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람: 커뮤니티 활동으로 보람을 느낀다.’(4.07점), ‘재미: 커뮤니티 활동이 재미있다.’ 및 ‘배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는다.’(각 4.0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커뮤니티의 지속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요소에 대해 필요 정도와 현재 상태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요소는 ‘수익’이었으며,

‘수익’ 다음으로 필요 정도와 현재 상태의 차이가 큰 요소는 ‘재미’로, 필요 정도는 4.14점이었으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는 4.03점으로, 현재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느끼는 재미의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커뮤니티 활동의 지향점

- 50+커뮤니티 활동의 지향점 항목별 동의 정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사회 공헌활동으로 연계된다.’(4.10점), ‘현재 활동의 내용이나 상태를 유지하며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소속감 및 연대의 기회를 제공한다.’(4.0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반면, ‘단체/기업 설립이나 판매 등 소득이 발생하는 일거리/일자리로 연계된다.’는 3.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 커뮤니티 운영 관련

- 지원금 정산 효율화: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연령대가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중·고령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고령 친화적 정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함. 다만 정산 시스템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아닌 우리은행에서 개발·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은행과의 협조가 필요함.
- 구성원 간 갈등해결: 갈등의 주요 원인이 커뮤니티 활동 내용과 구성원의 역할 분담에 있으므로, 갈등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함. 커뮤니티 플러스 신청서 작성 시 혹은 커뮤니티 활동 초반에 월별(혹은 주별) 활동 세부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개별 회원의 역할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지원금 수혜의 형평성: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기회 제한, 지원금 차등 지급

○ 커뮤니티 활동 관련

- 활동 비전 수립 및 활동 내용 자문 활성화: 커뮤니티의 활동 기간에 따라 다양한 활동 내용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와 자문이 필요함.

- 타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및 교류 기회 제공: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한 커뮤니티 간 연계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과제

- 커뮤니티 중복 선정 문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 3개 캠퍼스에서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커뮤니티의 참가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동일한 커뮤니티가 여러 개의 캠퍼스에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캠퍼스와 센터 간 교류 활성화: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의 목적이 50+세대의 연대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다면 커뮤니티가 어느 캠퍼스에서 지원금을 수령하고 다시 다른 기관에 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아울러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의 목적을 차치하고라도 이미 50+커뮤니티는 다양한 기관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캠퍼스의 구분을 없애고, 캠퍼스와 캠퍼스 간, 캠퍼스와 센터 간 커뮤니티의 연계와 교류의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임.
- 50+커뮤니티의 개념 정립과 비전 설정: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은 커뮤니티의 구성과 성장을 지원하고 견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커뮤니티 지원단, 멘토단 등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활동 내용과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50+세대만의 독자적인 신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해가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50+ 커뮤니티의 개념과 장기적 비전을 성급히 제시하기보다는, 50+ 커뮤니티 활동이 자연적으로 누적되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50+세대가 주축이 되는 소규모 공동체 확대: 50+커뮤니티는 마을 공동체와 같이 풀뿌리 지역공동체 조직과 주민들 간의 연대를 통한 참여형 민주주의 체제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음. 특히 현재 50+커뮤니티의 활동은 주로 또래집단 내에서의 교류

와 학습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커뮤니티의 활동 주제는 연령과 계층, 성별에 제한이 없으므로 확장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50+커뮤니티의 참여 대상과 활동 내용을 확대하여 향후 지역공동체 확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목 차

요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1. 연구의 내용	4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개괄	7
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7
2. 사업의 내용	17
3. 유사 사업과의 비교	27
제3장 50+커뮤니티 운영 현황	41
제1절 조사 설계	41
1. 조사 목적	41
2. 조사 설계	41
3. 자료 처리 과정 및 분석 방법	44
4. 응답 커뮤니티 특성	45
제2절 서울시50+커뮤니티 운영 현황	46
1. 커뮤니티 대표자 현황	46
2. 커뮤니티 결성과 지속, 활동 중단	47
3. 커뮤니티 활동	53

4. 커뮤니티 구성원	70
5. 커뮤니티 운영 경비 및 지원금	76
6. 커뮤니티 운영	81
7. 커뮤니티 활동 이후 삶의 만족도	88
제3절 50+커뮤니티 활성화의 의미와 지향점	90
1. 50+커뮤니티 지속과 활성화를 위한 요소	90
2. 커뮤니티 활성화 의미에 대한 항목별 동의 정도	92
3. 50+커뮤니티 활동의 지향점	92
제4장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95
제1절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95
1. 커뮤니티 운영 관련	95
2. 커뮤니티 활동 관련	98
제2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과제	100
1. 단기 운영 과제	100
2. 중장기 운영 과제	102
제3절 한계 및 제언	104
 부록	 105
참고문헌	123

표 목차

[표 II-1] 2018년도 커뮤니티 유형 분류	18
[표 II-2] 참가 제한 커뮤니티	18
[표 II-3] 커뮤니티 심사 항목	20
[표 II-4]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 단계별 지원 사업	27
[표 II-5] 동작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금 개요	29
[표 II-6] 마포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금 정보	29
[표 II-7] 서울여성가족재단 센터별 지원 내용	30
[표 II-8] 서울여성가족재단 지원금 개요	31
[표 II-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내용	31
[표 II-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원금 개요	32
[표 II-11]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지원 내용	33
[표 II-12]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지원금 개요	33
[표 II-13] 서울창업허브 지원 내용	34
[표 II-14] 서울창업허브 지원금 개요	35
[표 II-15] 커뮤니티 유사 사업 종합	36
[표 III-1] 조사개요	41
[표 III-2] 조사 내용	42
[표 III-3] 응답 현황	45
[표 III-4] 커뮤니티 회원 성별	46
[표 III-5] 커뮤니티 대표자 연령	46
[표 III-6] 연도별/캠퍼스별 커뮤니티 개수(선정 커뮤니티 전체)	48
[표 III-7] 연도별/캠퍼스별 커뮤니티 개수(중복 제외)	48
[표 III-8] 연장 신청 커뮤니티 개수	49
[표 III-9] 커뮤니티 플러스 참여 기간	50
[표 III-10] 커뮤니티 대표 변경 여부	50
[표 III-11] 커뮤니티 플러스 참여 중단 이후 활동	51
[표 III-12] 커뮤니티 해체 사유	52
[표 III-13]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중단 사유	53

[표 III-14] 커뮤니티 활동 내력	53
[표 III-15] 커뮤니티 활동 내력(연도별)	54
[표 III-16] 50+캠퍼스 이용자의 커뮤니티 결성 계기	55
[표 III-17]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동기	56
[표 III-18] 2016년도 커뮤니티 유형 및 유형별 분포	57
[표 III-19] 2017년도 커뮤니티 유형 및 유형별 분포	58
[표 III-20] 2018년도 커뮤니티 유형 및 유형별 분포	58
[표 III-21] 커뮤니티 활동 빈도	59
[표 III-22] 타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의 필요 정도	60
[표 III-23]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필요 정도	60
[표 III-24]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여부	61
[표 III-25] 교류 대상 커뮤니티의 특성	61
[표 III-26]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희망 여부	62
[표 III-27]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희망 이유	62
[표 III-28]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63
[표 III-29] 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회원 유무	64
[표 III-30] 커뮤니티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	65
[표 III-31] 커뮤니티 활동 및 활동처 탐색 경로	66
[표 III-32] 지역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정책 참여 경험	67
[표 III-33] 결성 초기 활동 유형	68
[표 III-34] 연도별 결성 초기 활동 유형	69
[표 III-35] 커뮤니티 유형 변경 여부	69
[표 III-36] 변경된 커뮤니티 유형	69
[표 III-37] 신규 회원 허용 여부	70
[표 III-38] 향후 신규 회원가입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	71
[표 III-39] 현재 신규 회원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	71
[표 III-40] 구성원 간 친목 도모의 활발 정도	72
[표 III-41] 구성원 간 친목 도모 활동의 활발 정도(참여횟수별, 유형별)	72
[표 III-42] 구성원과의 갈등 경험 여부	73
[표 III-43] 갈등 원인	73
[표 III-44] 커뮤니티 내 갈등 원인(유형별)	74

[표 Ⅲ-45]	갈등 상대방	74
[표 Ⅲ-46]	갈등 이후 현재 상황	75
[표 Ⅲ-47]	커뮤니티 운영 경비 조달 경로	76
[표 Ⅲ-48]	모임 1회 평균 지출 비용 및 경비 조달 경로(유형별)	77
[표 Ⅲ-49]	커뮤니티 지원금 사용 비율	78
[표 Ⅲ-50]	커뮤니티 지원금 예산 사용 항목	78
[표 Ⅲ-51]	커뮤니티가 지원을 받는 기관	79
[표 Ⅲ-52]	서울시50+지원금 정산 과정 만족도	79
[표 Ⅲ-53]	지원금 정산 과정 불편사항	80
[표 Ⅲ-54]	커뮤니티 운영 상의 애로사항	82
[표 Ⅲ-55]	커뮤니티 운영 애로사항(참여 횟수별)	83
[표 Ⅲ-56]	커뮤니티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83
[표 Ⅲ-57]	커뮤니티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참여횟수별)	84
[표 Ⅲ-58]	내년도 커뮤니티 운영과 활동 지속 여부	85
[표 Ⅲ-59]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86
[표 Ⅲ-60]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참여 횟수별, 유형별)	87
[표 Ⅲ-61]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비참여 이유	87
[표 Ⅲ-62]	커뮤니티 해체 이유	88
[표 Ⅲ-63]	50+커뮤니티 이후 삶의 만족도	89
[표 Ⅲ-64]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요소와 현재 상태	91
[표 Ⅲ-65]	50+커뮤니티 활동의 지향점 항목별 동의 정도	93

그림 목차

[그림 II-1]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7
[그림 II-2] 참여하고 있는 모임	8
[그림 II-3]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9
[그림 II-4] 사회적 관계망	9
[그림 II-5] 단체 참여 여부	10
[그림 II-6] 사회 참여	11
[그림 II-7] 우리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	11
[그림 II-8]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	12
[그림 II-9]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	12
[그림 II-10]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	13
[그림 III-1] 커뮤니티 대표자 연령(n=204)	46
[그림 III-2] 커뮤니티 활동 내력(연도별)	54
[그림 III-3] 커뮤니티 회원 간의 관계	76
[그림 III-4] 서울시50+지원금 차등지급 동의 정도 - 회원 규모	81
[그림 III-5] 향후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84
[그림 III-6] 내년도 커뮤니티 운영과 활동 지속 여부	85
[그림 III-7] 50+커뮤니티 활동의 의미 동의 정도	89
[그림 III-8] 50+커뮤니티 지속과 활성화 위한 필요 정도	90
[그림 III-9] 현 커뮤니티 운영 평가	91
[그림 III-10] 커뮤니티 활성화 의미에 대한 항목별 동의 정도	9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50+세대는 문화·여가 향유 수준이 낮고 사회 참여 활동 미흡
 - 베이비붐 세대는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한경혜 외, 2010), 실제 사회 참여는 저조한 실정임.
 -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베이비붐 세대 퇴직 대비 고령사회 대책 보완방안(2011)」을 통해 다양한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음.
 - 서울시에서는 「서울시50+지원 종합 계획(2016)」에서 “50+단체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상정하여 50+가 기획·운영하는 주체적 삶을 지원하고, 공유·확산하고자 함.
 - 따라서 50+의 주체적 삶을 지원하고 확산시키는 목적을 둔 50+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50+커뮤니티는 50+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는 기반을 제공함.
 - 50+커뮤니티는 다양한 관심사와 목적을 공유하는 50+세대들이 모여 교류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진해나가는 소모임으로, 사회적 관계망 구성을 통한 사회 참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50+세대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은 개인의 주관적 복지감이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증가, 신뢰 증대 등 사회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50+커뮤니티 사업의 지속과 활성화는 50+세대의 개인적·사회적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기 결성된 50+커뮤니티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의 활성화 도모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은 3개의 캠퍼스 및 각 센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매년 200개 이상의 커뮤니티가 결성되고 있음.
 - 커뮤니티들은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성장 단계에 있으며, 해체나 통합, 구성원 간 갈등 등 다양한 변화를 거치고 있으나 커뮤니티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한, 커뮤니티 심사 및 선발, 커뮤니티 결성 이후 활동 내용 및 발전 방안(단체 설립, 창업 등)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실정임.
 - 따라서 2016년 사업 시작 이래 결성된 커뮤니티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변화 및 발전 과정을 분석하여 향후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각 캠퍼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50+커뮤니티의 활동 현황(개수, 유형, 내용, 연혁, 구성 등) 분석
- 50+커뮤니티 활동의 주요 변곡점 조사 및 활성화 방안 수립

3. 연구의 범위

- 연구 대상: 서울시50+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소속 커뮤니티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등록된 커뮤니티
- 연구 범위: 커뮤니티 Data Base 구축, 커뮤니티 활동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커뮤니티의 양적/질적 활성화에 대한 의견 수렴, 커뮤니티 운영 상 개선방안 도출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1) 커뮤니티 운영 현황 분석

○ 기초 조사

- 각 캠퍼스별, 연차별 커뮤니티 신청서를 기반으로 커뮤니티 활동 목적, 인원수, 예산 범위 및 활용방법 등을 조사
- 담당 PM 및 지원단 대상으로 활성화에 관한 의미 도출, 성장단계 세분화

○ 설문조사

- 조사 내용: 성장단계 평가(기준 수립 필요), 활동 세부 사항(타 부서와의 교류, 대표자 및 구성원 관계, 예산집행 관련), 활동 시 애로사항, 50+커뮤니티 플러스 지원 내용 관련(커뮤니티 지원단 개입 정도, 지원단 역량, 지원금액 등) 만족도 및 요구 사항 등
- 조사 대상: 역대 커뮤니티 전수 조사
- 조사 방법: 전화 및 온라인 조사

○ 조사 결과 분석

- 커뮤니티 운영 현황 파악
- 커뮤니티 운영상의 어려움
- 커뮤니티 활동의 의미 도출

2)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도출

○ 커뮤니티 운영 개선방안 도출 및 활성화 전략 수립

- 50+커뮤니티 운영의 장기적 목표 수립
- 커뮤니티 특성별 활성화 전략 수립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 사전 인터뷰
- 설문조사
- 전문가 자문 및 검토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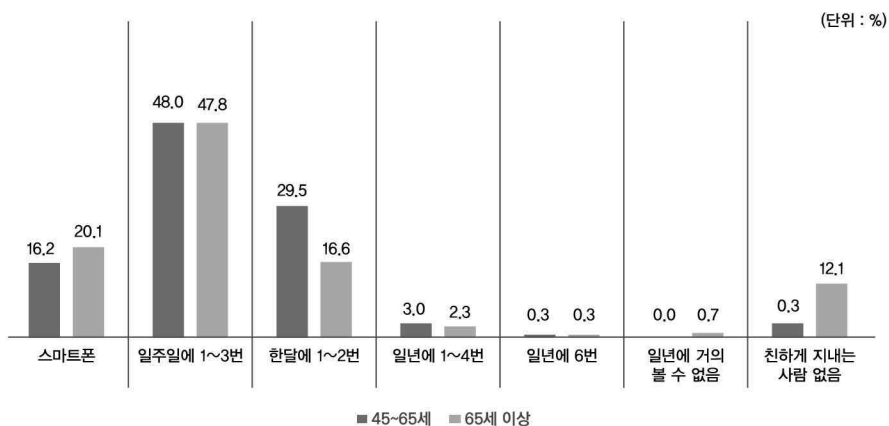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개괄

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 50+세대의 사회적 관계망 특성

○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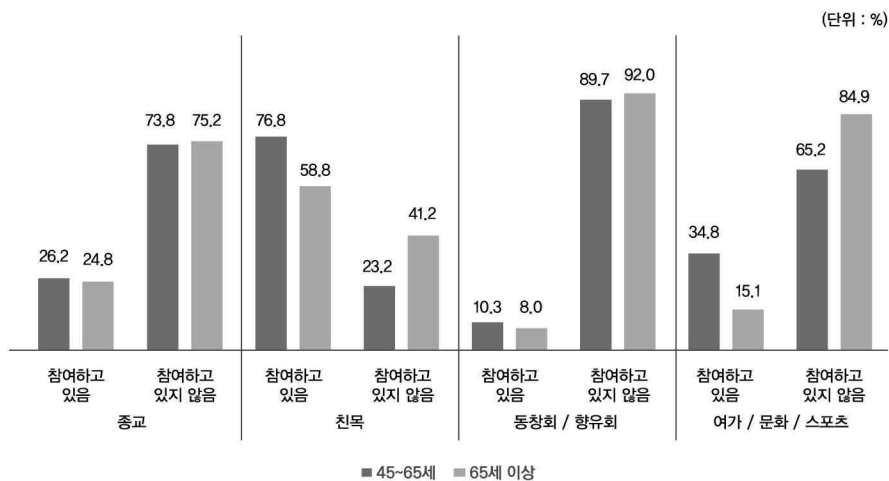
- 『고령화연구패널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50+세대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만남 정도는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1~2번이나 한 달에 1~2번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그림 II-1]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횟수

- 거의 매일 만나는 비율은 45~65세(16.2%)가 65세 이상(20.1%)보다 낮고, 한 달에 1~2번 정도 만나는 비율은 45~65세(29.4%)가 65세 이상(1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50+세대가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종교 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모임, 동창회·향우회 등이 있음.
- 친목모임(계모임)이 45~65세(76.8%)와 65세 이상(58.8%) 두 집단에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동창회·향우회가 두 집단에서 모두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45~65세의 모임 참여율이 전 부분에서 65세 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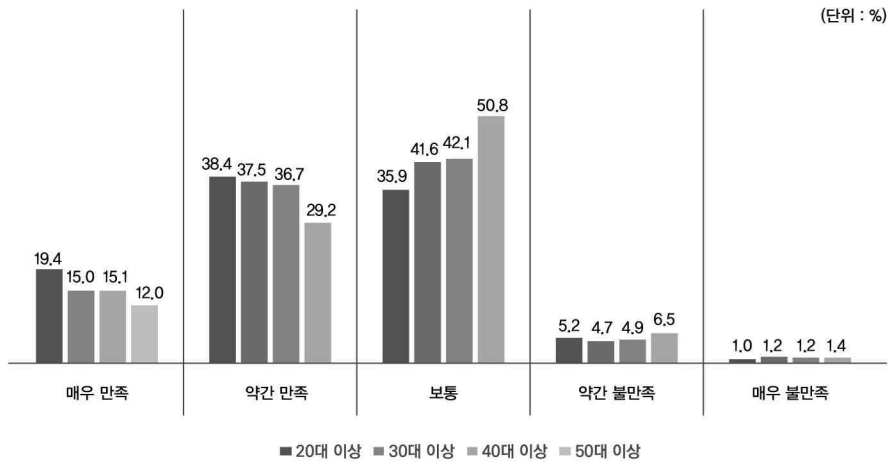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16),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그림 II-2] 참여하고 있는 모임

○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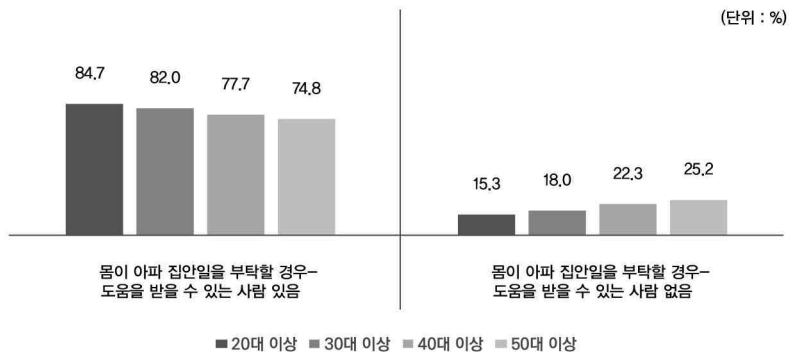
-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분석 결과 매우 만족의 비율은 20대(19.4%), 40대(15.1%), 30대(15.0%), 50대 이상(12.0%) 순서로 나타났고, 약간 만족의 경우에도 50대 이상(29.23%)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보통(50.8%), 약간 불만족(6.5%), 매우 불만족(1.4%)의 비율은 50대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자료: 국가통계포털(2017), 『사회조사』

[그림 II-3]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 사회적 관계망 분석 결과,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50대(74.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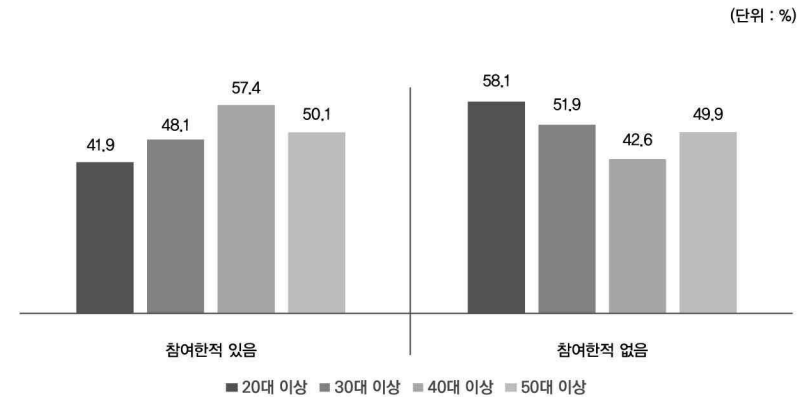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2017), 『사회조사』

[그림 II-4] 사회적 관계망

- 단체 참여는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여가 활동 단체, 시민 사회단체, 학술 단체, 이익 단체, 정치 단체, 지역사회 모임 참여여부를 보여줌.

- 분석 결과 40대(57.4%), 30대(48.1%), 50대(50.1%), 20대(41.9%) 순으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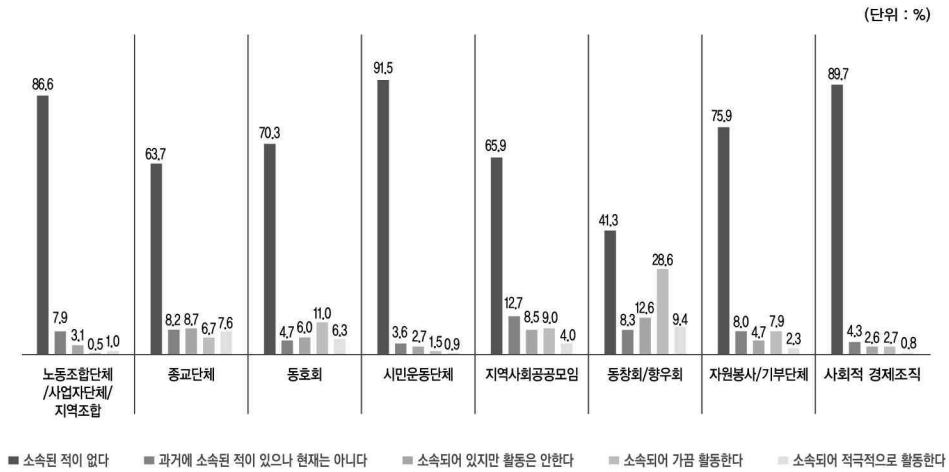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포털(2017), 『사회조사』

[그림 II-5] 단체 참여 여부

○ 사회통합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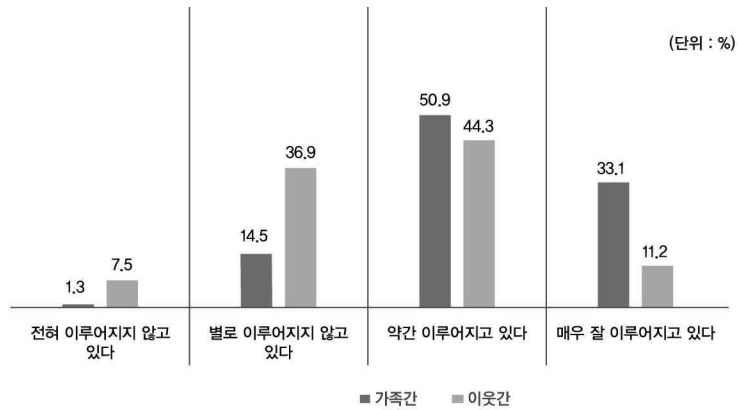
- 사회 참여 부문에서 50+세대의 사회단체 활동은 노동조합단체, 사업자단체, 직업 조합/종교단체/동호회/시민운동단체/지역사회 공공 모임/동창회, 향우회/자원봉사, 기부단체/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분석 결과, 단체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동창회/향우회(9.4%)였으며, 종교단체(7.6%), 동호회(5.3%)가 다음을 차지하고 있음.



자료: 국가통계포털(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II-6] 사회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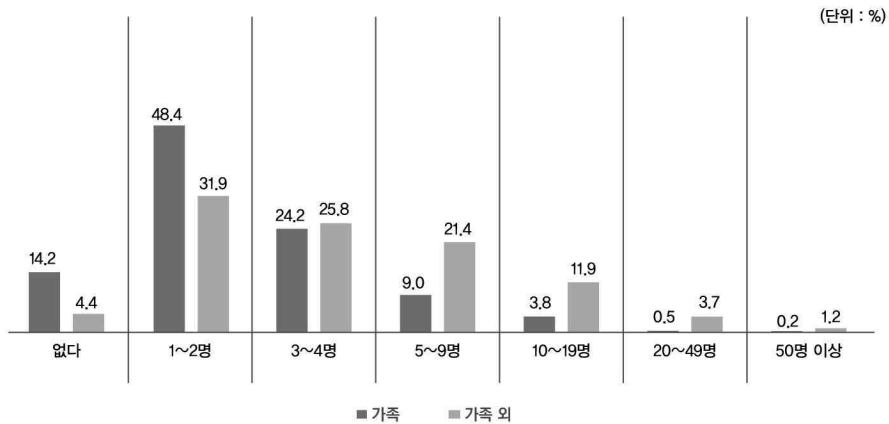
- 50+세대의 우리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을 분석한 결과, 가족 간 소통(50.9%)이 이웃 간 소통(44.3%)보다 약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자료: 국가통계포털(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II-7] 우리 사회 집단 간 소통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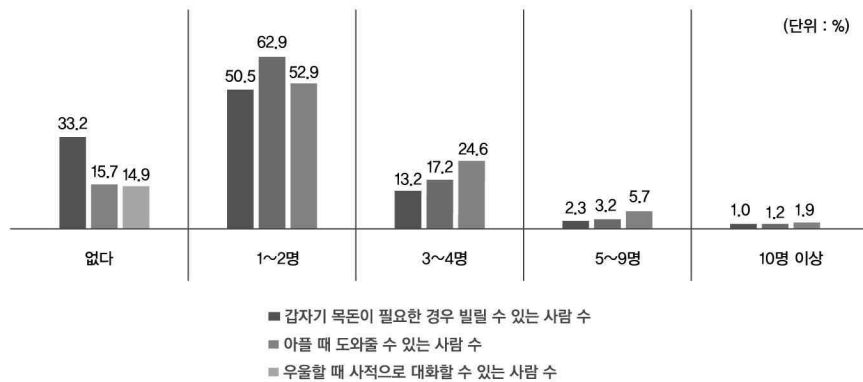
- 50+세대의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를 분석한 결과, 1~2명과의 접촉 비율이 가족의 경우(48.4%)와 가족 외의 경우(31.9%)에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남.



자료: 국가통계포털(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II-8] 평일 하루 접촉하는 사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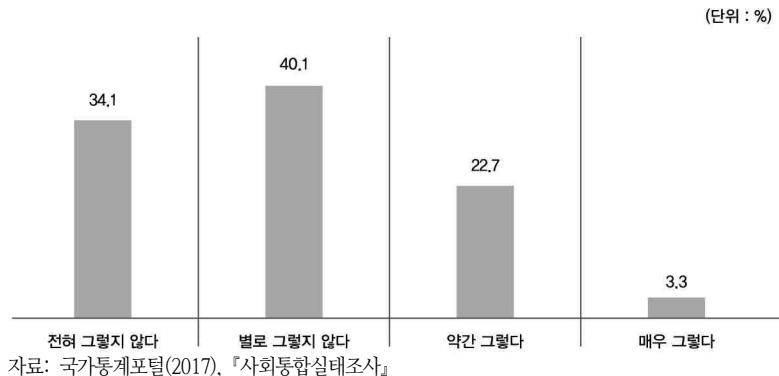
- 50+세대의 사회적 소통 부문에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빌릴 수 있는 사람의 수는 1~2명(50.5%)이 가장 높았고, 없다(33.2%)고 응답한 비율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33.2%).
- 50+세대가 아프거나 우울할 때 도움을 주거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1~2명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62.9%), 3~4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17.2%).



자료: 국가통계포털(2017), 『사회통합실태조사』

[그림 II-9] 사회적 소통

- 50+세대가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별로 그렇지 않다(40.1%)가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약간 그렇다(22.7%), 매우 그렇다(3.3%)로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게 나타났음.



[그림 II-10] 외롭다고 느끼는 정도

○ 『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 조사 연구 I, II』

- 서울시 50+세대는 가족 외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수년 내에 완전 은퇴 시에는 사회관계의 축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됨.
- 한편 최근 중고령층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은 특별한 정책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문제임.
- 은퇴 후 중고령층은 역할 상실, 지위의 변화,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상태 및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겪게 되고, 이는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중고령층 자살률에 영향을 미침.
- 따라서 50+세대가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발한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독려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 50+세대는 스스로를 65세 이상 인구와 40대 이하 인구 사이에 ‘깎 세대’로서 교육 수준, 경제적 여유 등 삶의 질 측면에서 65세 인구보다는 나은 삶을, 40대 이하 인구보다는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인식함.

- 이들은 50+세대에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또한 갖고 있음.
- 따라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한 욕구 및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2) 50+커뮤니티의 필요성

○ 50+세대의 삶의 질 고취

- 중장년기로 대변되는 50+세대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비롯하여 자녀의 독립, 부모세대의 죽음 등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임.
- 또한 중장년기는 노년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노년기에 대비한 경제적, 사회적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함.
-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또래 집단의 정서적 지지와 유대감 형성은 중장년층이 겪는 경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역할상실로 인한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개인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중장년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망은 노년기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바,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이 중요함.

○ 중장년층의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 비용 절감

-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 중장년층의 경우 심리적, 생활패턴 및 사회관계의 변화를 통한 건강증진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사회 참여는 중장년층의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긍정심리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어 주관적인 건강수준을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됨. 이는 의료비 지출 절감으로 이어져 결국 사회비용을 감소시킬 것임.

- 더구나 50+세대의 인구 비율은 2018년 현재 228만 명(전체 인구의 22.6%)에 이르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은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커뮤니티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은 시민과 지방·중앙정부의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정책 참여 및 수용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즉 중장년층 커뮤니티 활성화는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회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가능케 하며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함(이희태, 2012).

○ 신중년 5060세대의 등장과 신중년문화 형성

- 신중년 5060세대라 일컫는 중장년층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 안정과 높은 학력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노인세대와 다르게 건강이나 안전, 안락한 삶 등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를 계발하고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보다 고차원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질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한정란 외, 2008).
- 특히 중장년층은 자신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해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욕구가 강한 편이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음. 더불어 조기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따라서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중장년층에게 사회구성원의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감정과 공유된 행동 규범 및 공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Seragedin & Grootaert, 2000) 중장년층의 사회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즉 빠른 시일 내에 노년기로의 진입이 예정되어 있는 중장년층은 노후 대비를 위해 사회적 자본을 미리 형성해두는 작업이 필요함. 즉 중장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3) 50+커뮤니티의 목적

○ 중장년층 공동체 및 연대 강화

- 커뮤니티를 통해 50+세대의 사회적 관계망이 구축됨으로써 그들만의 공유체계와 연대감을 형성하고, 이는 소속감을 기반으로 한 긍정심리를 유발하여 중장년층의 공동체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중장년층은 청년층과 노년층을 연결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로써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잘 구축된다면, 사회 전반에 걸친 관계 복원 및 소통의 주체로서 세대 간 통합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사회 공헌”이라는 중장년기의 새로운 역할 인식과 확산

- 중장년층의 경력을 활용하여 형성된 다양한 커뮤니티는 개인적 성취외에 사회·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특히 중장년층의 높은 학력 수준과 더불어 이들의 경험을 통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커뮤니티라는 매개체를 통해 집약된다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 즉 일, 문화 창작, 자기 계발 등 공동의 관심사에 따라 커뮤니티를 구성, 재능기부 기회를 제공해 자연스럽게 사회활동에 나서는 기회를 갖게 됨.

○ 취·창업 등 일자리로의 연계를 위한 발판 마련

- 50+세대가 모여 커뮤니티를 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취업 및 창업 정보를 공유하여 1차 퇴직 이후 재취업의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중장년층의 문화 형성 및 선도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주로 산업화 이후에 생겨난 제도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역사적·문화적 선례가 전무한 실정이나, 앞으로는 대부분의 세대가 퇴직 이후의 삶을 살게 될 것임. 따라서 현재 50+세대들은 퇴직 이후의 문화를 형성해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맡게 될 것임.
- 또한 커뮤니티에 속한 50+세대들이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그들이 가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일방적인 복지 서비스 수혜가 아닌 자발성과 창의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중노년기 대상 정책 실행의 효과성 제고

-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 복합공간을 제공함으로써 50+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중노년기 대상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중장년층의 사회참여를 통해 정책과 관련된 복잡한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전달이 가능해질 수 있음.

2. 사업의 내용¹⁾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교육 수강, 사업 참여 후 커뮤니티 결성을 통한 자율적인 후속 활동 지원
- 50+세대의 생애설계를 주제로 활동하는 지역사회 커뮤니티 발굴
- 정보 및 관계의 거점으로서 캠퍼스와 커뮤니티의 점점 확대, 협력 강화
- 자립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무대의 확장 및 성장 견인
- 당사자 주도의 50+커뮤니티 생태계 조성 및 신문화 담론 형성

○ 사업 대상

- 교육과정 및 사업 참여 후 동기들과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커뮤니티
- 50+세대 생애설계 관련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커뮤니티
- 자원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활동을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커뮤니티

○ 참여 조건

- 최소 5명 이상(50+세대 3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된 모임이어야 함
- 기본 구성원 5명은 서울시50+포털(50plus.or.kr) 아이디가 있어야 함

1) 사업 내용은 『서울시50+캠퍼스(서부, 중부, 남부)의 각 년도 커뮤니티플러스 사업운영계획(안)』을 기반으로 함.

- 대표자는 만 50~64세의 서울시민이거나 서울시 생활권 자만 가능.

※ 생활권자: 서울시 주소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이거나, 서울시 주소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직증명 또는 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활동 유형

- 커뮤니티 활동 유형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이 시작된 2016년 이래로 매년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
- 2016년: 사회 공헌, 사회적 관계, 여가, 건강, 일자리/노동, 가족, 재무의 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2017년: 공익/사회 공헌, 학습/연구, 문화/창작, 일 탐색/경력개발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2018년: 일, 학습, 문화, 사회 공헌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표 II-1] 2018년도 커뮤니티 유형 분류

2018년도 커뮤니티 유형 분류	
일	창업·창직 관련 연구 및 준비, 경력개발, 직업 역량개발, 소득 창출
학습	특정 주제 심화 학습, 훈련, 학습 결과물 도출, 기술 및 역량 개발
문화	문학·미술·음악 등 문화 활동, 창작 및 공연, 활동처 발굴
사회 공헌	자원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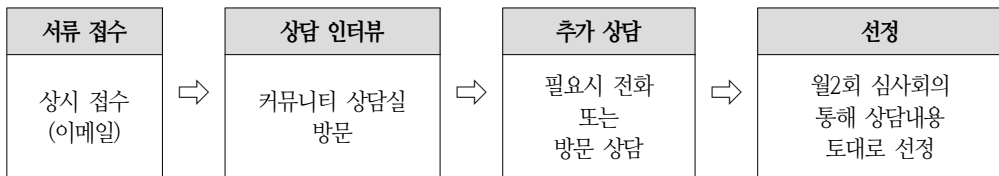
○ 참가 제한

[표 II-2] 참가 제한 커뮤니티

일반 참가 제한	정당, 종교와 직접적 관련이 있거나 영리만을 추구하는 커뮤니티
단순 취미 모임	50+세대 전반과 관련된 의미, 가치, 확장성이 없이 모임 구성원들의 폐쇄적인 취향 공유, 재능 개발, 친목 도모 등을 위한 커뮤니티
기성 단체 프로젝트 수행	일정 규모 이상의 기성 단체가 본연의 사업 중 일부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지원을 신청한 경우
강사-제자 학습모임	강사가 직접 조직하거나 특정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한 제자들의 모임으로, 강자-제자 관계 이외에 커뮤니티 성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청 및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신청 접수

- 상시 모집 홈페이지 공고, 이메일 접수
- 참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제공, 사업 및 예산편성 안내 제공

○ 심사 절차

- 이메일 접수 확인 후 개별 연락, 대표 및 사업 책임자 캠퍼스 방문 상담
- 필요시 전화 또는 이메일 연락을 통한 추가 상담, 참가 신청서 검토
- 월 2회 심사회의 개최, 참가 신청서 및 상담 결과 토대로 선발
- 심사위원회 구성: 담당 PM, 커뮤니티 지원단
- 재신청: 심사 불합격 후에도 참가 신청서 수정하여 재신청 가능

○ 선발 기준

- 활동 계획: 사업 참여 동기, 활동 목적의 구체성과 적합성, 비전
- 예산 편성: 예산안의 구체성과 적합성, 보조금 관리 역량
- 우대 사항 및 제한 조건: 개방적 성격으로 캠퍼스 사업에 참여, 협력할 뜻이 있는 커뮤니티 우대, 타 캠퍼스(중부, 남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중복 선발 시 선발 취소

○ 상담 운영

- 50+커뮤니티 지원단 교대 활동으로 평일 중 상시 상담 운영
- 3층 학생회관 공간(구 모더레이터실 포함, 컴퓨터 및 프린터 사용) 활용

○ 심사 운영

- 심사 대상: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익월 심사
- 심사 방법: 서류 검토 및 상담 결과로 매월 15일경 심사, 채점
- 심사 기준: 활동 계획서, 예산안, 실행력 및 상담평가

[표 II-3] 커뮤니티 심사 항목

심사항목	세 부 내 용
활동 계획	사업 취지 적합성, 활동목적의 현실성, 계획의 구체성 등
예산안	예산안의 적합성과 구체성, 활동비 지출 관리 역량 등
실행력	대표자 및 회원들의 활동 의지, 의사소통 정도 등
상담평가	상담 과정에 대한 협력 정도, 의사소통의 원활함 등

○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

- 활동 협약서 체결: 활동 수행, 활동비 관리와 정산, 결과 보고, 결과물 활용 등에 대한 협약서 체결
- 오리엔테이션: 회계 담당자 확인, 예산 집행 기준 및 예산 변경 방법 안내, 지출 증빙 양식 작성 및 자료 제출 교육

3) 운영 세부 내용

① 활동비 및 공간 지원

○ 커뮤니티당 최대 50만 원(활동기간 3~5개월)

- 지원 취지: 커뮤니티 활동 동기 부여, 모임의 안정성과 지속성 향상 차원 제공
- 지출 항목: 커뮤니티 운영 제 비용(홍보 인쇄비, 물품 구입비, 강사비, 활동비 등)
- 지원 방식: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 활용

○ 연장 지원: 유사 커뮤니티 연대 활동 또는 우수 커뮤니티에 대해 운영지원 (25~50만 원)

○ 공간 지원

- 정기모임: 각 캠퍼스 모임방, 강의실 등 이용 기회 제공(중복 시 제외)
- 행사 및 프로젝트 수행 시: 캠퍼스 강의실 등 공간 대관 지원(사전 신청, 전화 상담 등을 통해 내용 확인 후 대관, 장기 사용이나 지속적인 모임 운영을 위한 대관 신청은 제외)

② 협력 사업 및 멘토링

- 계절학기 강좌 개설, 박람회 개최 등 협력 사업 기회 제공
- 단체 설립, 활동 무대 확장 등 성장을 위한 멘토링 교육 지원

③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

○ 운영 방법

- 커뮤니티 보조금은 우리은행 보조금 통장으로만 지급, 시스템 등록 의무화
- 지출결의서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서 작성, 상세 항목 추가로 회의록 대체

○ 기대 효과

- 시스템 일원화로 커뮤니티와 캠퍼스 모두 지출 및 서류 관리 편리성 증대
- 온라인 서류 작성 등 경험 축적, 보조금 사업자로서 커뮤니티 역량 재고

④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개설

○ 운영 방법

- 온라인 카페 개설, 커뮤니티 선정 후 가입 의무화, 게시판에 활동 일지 작성
- 월 2회 이상 양식(기본 정보, 사진 등)에 따라 활동상이 드러나도록 작성
- 활동 연장 지원, 단체 설립 지원 등 추가 보조금 지급 심사에 반영

○ 기대 효과

- 커뮤니티 활동상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 홈페이지와 연계해 활동 홍보
- 서부/중부/남부 캠퍼스 공동 운영, 중복 참여 모니터링, 커뮤니티 관계망 확장

4) 연계 사업

① 사업설명회

○ 사업 목적

- 참가 신청서 작성, 예산안 편성,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상세 안내 제공
- (예비) 커뮤니티 리더들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
- 일반 참가자에게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안내 및 홍보

○ 시기 및 특징

- 4월, 6월: 홈페이지 공지, 홍보물 배포, 관심 있는 일반 참여자 신청 접수
- 단체 설립 지원 사업 등 연계 사업을 포함한 통합적 설명 및 커뮤니티 성장 지원에 관한 로드맵 제시

② 50+커뮤니티 지원단(캠퍼스 전체)

○ 사업 개요

- 2018년도 신규 보람일자리 사업, 3월부터 서부캠퍼스에서 5명 활동

- 1일 8시간 이내, 월 57시간 활동, 3층 (구) 모데레이터실 업무 공간 사용

○ 활동 내용

- 커뮤니티 플러스 심사, 모니터링, 파일 정리, 보고서 작성 등 행정지원
- 커뮤니티 활동 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문제 해결 등 상담지원
- 커뮤니티 성장을 위한 홍보, 네트워크, 단체 설립 컨설팅 등 활동 지원

○ 활동 방식

- (구) 모데레이터실을 상담실로 활용하여 교대 근무, 평일 상시상담 운영
- 주 1회 주간회의 통해 선발 심사, 운영 회의, 신규 커뮤니티 교육 진행

③ 단체 설립 지원 사업(캠퍼스 전체)

○ 사업 개요

- 협동조합, 사단법인 등 공식 단체 및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커뮤니티 지원
- 커뮤니티 당 최대 100만 원 보조금 지급, 설립 절차 관련 자문비 등에 활용

○ 사업 운영

- 기본 커뮤니티 활동 계획에 단체 설립 추진 계획을 추가하여 신청서 접수
- 연 1회 지원, 커뮤니티 플러스 중복 지원 가능(단 합계 최대 150만 원)

④ 커뮤니티 멘토단(서부캠퍼스)

○ 사업 개요

- 서부캠퍼스 입주 사무실 단체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 결성
- 멘토링 교육 운영, 단체 설립 지원 상담 및 심사, 기타 협력 사업 기획

○ 입문 멘토링

- 3, 5월 사업설명회 직후 커뮤니티 활동 입문 교육 운영 및 개별 멘토링
- 커뮤니티 결성에 관심 있거나 초기 활동 중인 커뮤니티 대표 및 회원 대상

○ 성장 멘토링

- 4, 6월 커뮤니티 사업 확장, 단체 설립 준비 등을 위한 성장 워크숍 개최
- 커뮤니티 플러스에 선발됐거나 성장 단계의 커뮤니티 대표 및 회원 대상

⑤ 네트워크 파티(서부캠퍼스)

○ 사업 개요

- 서부캠퍼스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단체)의 활동을 알고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을 넘어, 유형별 혹은 공통의 관심사에 따른 협력 주제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과제와 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을 제공함

○ 사업 목적

- 커뮤니티 간 상호 활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협력 주제 발굴, 공동의 프로젝트 기획 및 추진을 위한 논의 테이블 제공
- 커뮤니티에서 제안한 협력 주제 또는 유형별 주제에 대한 조별 네트워크의 장 제공, 퍼실리테이터 배정, 원활한 논의 촉진
- 2018년도 커뮤니티 플러스/50+단체 설립 지원 사업 성과 공유, 송년 모임 방식의 친목 도모

⑥ 서부캠퍼스 와글와글(서부캠퍼스)

○ 사업 개요

- 서부캠퍼스 교육과정 등에 참여했거나 주변 지역의 관심 있는 50+세대가 인생 후반기의 배움과 생애전환을 주제로, 축제의 형식을 통해 교류하고 토론하며, 캠퍼스를 거점으로 하는 50+세대의 커뮤니티 활동 문화와 사회 참여 담론의 확장을 촉진함

○ 사업 목적

- 캠퍼스 교육과정 또는 사업 참여 후 새롭게 관계를 맺은 동료들과 함께 캠퍼스를 거점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는 50+커뮤니티의 수, 사례의 유의미한 증가
- 50+커뮤니티의 양적 확대에 따라 개념, 가치, 정책적 방향성 등 정리 필요

- 대중적 행사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통해 50+커뮤니티에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커뮤니티 활동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 마련
- 개별적인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의 경계를 넘어 서부캠퍼스의 다양한 사업 참여자, 관계자, 관심 있는 시민들이 폭넓게 교류하고 화합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

⑦ N 개의 아카데미(서부캠퍼스)

○ 사업 개요

- 커뮤니티 고유의 활동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계절학기 강좌 개설
- 커뮤니티가 교육 콘텐츠를 제안, 소정의 심사를 통해 개설된 강좌 운영

○ 사업 운영

- 회원 중 특정 개인의 콘텐츠가 아닌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한 콘텐츠만 접수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선정, 커뮤니티 간 교류와 배움이 가능토록 기획

○ 기대 효과

-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축적된 지식, 재능을 50+세대와 나누는 장 마련
- 커뮤니티 내 결속력, 콘텐츠 경쟁력, 사업 운영 경험의 축적 기회 제공

⑧ 찾아가는 50+프로보노(서부캠퍼스)

○ 사업 개요

- 지역사회 주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커뮤니티의 강사활동, 재능기부 연계
- 캠퍼스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커뮤니티와 활동 수요처 간 자율적 매칭 확대

○ 기대 효과

- 활동력이 검증된 커뮤니티 중심 지역 취약계층, 학습 및 문화소외계층 지원
- 50+세대와 지역사회의 점점 확대, 커뮤니티 활동처 발굴, 사업 경험 축적

⑨ 커뮤니티 학교(중부캠퍼스)

○ 사업 목적

- 중부캠퍼스 커뮤니티가 직접 기획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발굴
- 50+그룹(커뮤니티) 콘텐츠 활용 확대로 50+세대 욕구 충족

○ 운영 방법

- 2017년 이후 중부캠퍼스 커뮤니티 플러스 참여 커뮤니티(지원금 수혜 커뮤니티) 중 커뮤니티 활동 내용에 부합하는 콘텐츠로 최대 4회차 강의를 구성하여 교육 운영계획서 제출
- 교육 운영계획서 심사를 통해 상위 고득점 5개 콘텐츠 선발하여 커뮤니티 학교 개설
- 커뮤니티 학교 홍보 및 수강신청을 통해 수강 인원을 모집하고, 커뮤니티 학교를 운영함

⑩ 커뮤니티 사례 공유회(중부캠퍼스)

○ 사업 개요

- 중부캠퍼스에서 생성된 커뮤니티(50+단체 설립) 대상, 이그나이트 형식의 사례 공유회를 개최하여 커뮤니티의 관심 주제와 성장 관점 키워드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50+세대의 커뮤니티 활동 방향에 대해 공론화함

○ 사업 목적

- 2018년 커뮤니티 플러스 및 50+단체 설립 지원 사업 성과 공유
- 사업 참여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환류 활동 제고

⑪ 커뮤니티 우수사례 및 작품 발표회(남부캠퍼스)

○ 사업 목적

- 커뮤니티의 우수한 콘텐츠 및 작품 실력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 제공
- 캠퍼스에 대한 당사자들의 소속감 고취로 캠퍼스 이용 만족도 제고

- 일상적인 예술 활동 지원 및 공연과 전시가 어우러진 50+문화 확산
- 전시, 공연 등 커뮤니티 문화 확산을 위한 대중적 참여의 장 마련

○ 사업 개요

- 2018년 11월 초 개최 예정
- 커뮤니티 대표 및 회원, 커뮤니티 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준비기획단 구성
-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50+세대, 전문가, 지역민 참여로 열린 행사 지향

3. 유사 사업과의 비교

1) 유사 기관의 사업 현황

①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

○ 기관 연혁: 2012년 8월 23일

○ 설립 목적

- 광역형 마을 사업을 발굴해 실행하고 자치구 마을센터에서 주민 밀착형 마을 공동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제도개선 활동에 협력함.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웃 간의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함.

○ 단계별 지원 사업

[표 II-4]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 단계별 지원 사업

단계	세부 내용		
씨앗기	구분	주민모임 형성사업 I	주민모임 형성사업 II
	사업 기간	3~4개월	6개월 내외
	사업내용	- 주민 필요와 욕구를 해소하고 자기 존중감 회복 - 지리적 공간 범위 내 소속감, 신뢰감 획득	

〈표 계속〉

단계	세부 내용		
	지원 규모	100만 원 이내	100~200만 원 이내
	신청자격	- 1개 주민모임(대표 제안자 3인 이상 및 참여자) - 마을 공동체 활동에 처음 등장하는 주민(연속 지양)	- 1개 주민모임(대표 제안자 3인 이상 및 참여자)
	연장 가능 여부	상황에 따라 조정	상황에 따라 조정
	공간 제공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새싹기	구분	공동체 활성화	골목·공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간	6~8개월	
	사업내용	- 지역의 범위 설정 - 공동의 의제(지역의제·생활의제)를 수립하고 해결(실행) - 지속 가능한 논의구조의 형성	○ 골목 - 지역의 범위 설정 - 공동의 의제(지역의제·생활의제)를 수립하고 해결(실행) - 지속 가능한 논의구조의 형성 ○ 공간 - 공간의 특성을 살리며 마을 공간으로서의 공공성·개방성 확보 - 공간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의 등장 및 모임의 활성화 - 공간 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속 가능한 논의구조 형성
	지원 규모	사업별 상황에 따라 조정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조정
	신청 규모	1개 주민모임 혹은 2개 이상 주민모임이 연합하여 신청	1개 주민모임 혹은 2개 이상 주민모임이 연합하여 신청
	연장 가능 여부	상황에 따라 조정	상황에 따라 조정
	공간 제공 여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지원금 관련

- 동작구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

[표 II-5] 동작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금 개요

구분	내용
출처	자치구 예산+서울시 보조금
사용 항목	일반 활동비, 홍보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단기 임차료, 식비 및 다과비, 강사비, 공연비, 교육비
사용 및 결산 방법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

- 마포구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

[표 II-6] 마포구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지원금 정보

구분	내용
출처	자치구 예산*
사용 항목	일반 활동비, 홍보 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단기 임차료, 여비, 식비 및 다과비,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교육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사용 및 결산 방법	우리은행 보조금 시스템

② 서울여성가족재단

○ 기관 연혁: 2002년

○ 설립 목적

- 서울 여성의 경제력 강화, 서울 가족 돌봄 지원, 체감하는 성주류화, 여성안전과 사회통합 관련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 및 실행
- 지역기반 여성의 풀뿌리 활동 활성화, 소통과 공유를 통한 성 평등 의제 확산 사업 등을 통한 동반자형 젠더 거버넌스 강화
- 여성 시민 공유 공간 활성화, 성 평등 테마 공간 운영 등 여성 시민이 주인인 공간 조성

○ 센터별 지원 내용

[표 II-7] 서울여성가족재단 센터별 지원 내용

지역	구분	세부 내용
중부	사업 목적	센터 수강생 및 수료생,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수강생들이 창업연구와 아이템 개발 등 구체적인 창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내용	- 공간 대여: 강의실(특수 강의실 및 강당 제외) 주 1회 3시간 무료대관 - 정보제공: 취·창업 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제공
	사업 기간	1년(연장 불가)
	지원금	없음
북구	사업 목적	동아리 참여를 원하는 새일센터 구직자 및 취업자 10명 이상을 대상으로 새로 일하기 센터 구직자 및 취업자가 참여하는 직종별 동아리 활동 지원
	지원 내용	교육사업, 취업지원실 사업(공간 대여)
	사업 기간	1년(연장 가능)
	지원금	연 400,000원(동아리별로 다름)
동부	사업 목적	서울시 여성교육기관 교육생 및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들의 의미 있는 사회참여와 사회 활동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향상 및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 확대
	지원 내용	- 공간 대여: 활동 공간 제공 및 시설 장비 이용 - 정기적인 대표자회의, 교류, 간담회 등 본 기관 취/창업 프로그램 우선 참여 기회제공 등
	사업 기간	1년(연장 가능)
	지원금	연 300,000원
서부	사업 목적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센터 이용자들의 심화 학습, 자격증 취득, 취·창업 정보 공유를 통한 역량 강화
	지원 내용	- 공간 및 물품 제공 - 기념품 제공 및 교재 복사 등 행정서비스 지원 - 협동조합 및 취·창업교육 우선 지원 - 타 기관 동아리 및 지역 행사 연계
	사업 기간	1년(연장 가능)
	지원금	없음

○ 지원금 관련

[표 II-8] 서울여성가족재단 지원금 개요

구분	내용
출처	서울시 보조금
사용 항목	강사비, 재료비, 인쇄비, 물품 구입비 등 증빙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는 항목*
사용 및 결산 방법	지출 내역 영수증 처리

* 취/창업과 관련된 항목이어야 하며, 식사비나 다과비와 같은 항목은 금지되어 있음. 또한 도서구입비처럼 학습을 위한 지출의 경우 동아리 당 1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③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기관 연혁: 2013년 10월 21일

○ 설립 목적

- 평생학습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추진,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의 질 제고

○ 사업별 지원 내용

[표 II-9]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원 내용

	구분	세부 내용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사업 목적	- 일상 속 자발적인 학습과 공동체 실천을 함께 하는 지속적인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 학습+실천형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습공동체 형성 및 시민 주도형 학습동아리 문화 조성 - 학습동아리 활동의 경험과 성과 공유·확산을 통한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내용	- 심화 학습 지원: 학습 소모임 성장을 위한 학습비 지원, 심화 학습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등 학습 소모임당 60만 원 내외 학습비 지원(자산성 성격의 물품 구입 제외) - 학습 소모임 및 시민기획단 활동 지원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포럼, 간담회 등 운영비(필수 1회 이상 운영) - 자원봉사교육 및 활동 지원: 자원봉사의 의미 및 자원봉사자의 역할 등 자원봉사 기초교육 실시, 학습 소모임별 자원봉사 수요처 연계 또는 프로젝트 기획 후 실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 및 소모임 활동비(간담회, 평가회-예산 20% 범위 내)지원
	사업 기간	9개월
	지원금	40~60만 원

	구분	세부 내용
모두의 학교 커뮤니티 지원 사업	사업 목적	- 시민들에게 학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경험 공유 및 조직 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 주도의 모두의 학교 학습문화 활성화 도모 - 나의 학습이 공동체·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조직 및 활동경험 기회 제공 - 모두의 학교 공간·가치·기타 등 다양한 주제로 꾸준히 즐겁게 활동 할 커뮤니티 지원
	지원 내용	- 활동 공간 제공: 모두의 학교 동네 부엌, 운동장, 시민 소통 공간 등 활동에 맞는 공간 활용 -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커뮤니티 팀 당 400천 원 내외 홍보 인쇄비, 재료비 지원 - 컨설팅 제공: 커뮤니티 팀당 길잡이 1인과 매칭하여 지속적인 커뮤니티 성장을 위한 자문 제공 - 활동 실적에 따라 이벤트(다과, 친목활동 행사지원 등) 제공
	사업 기간	3개월
	지원금	40만 원 내외

○ 지원금 관련

[표 II -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지원금 개요

구분	내용
출처	서울시 출연금
사용 항목	강사비, 재료비, 교재비, 홍보 인쇄비 등 자산성 성격의 물품을 제외한 항목을 허용하고 있음
사용 및 결산 방법	자치구마다 결산 방식이 다름*

*자치구별 공모사업으로 지원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자치구마다 배분방식이 다름.

④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 기관 연혁: 2017년

○ 설립 목적

-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과 시민주도의 실천형 민주시민교육활동 지원 등을 통해 삶 속에서 민주주의 의식 함양과 더불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 지원 내용

[표 II-11]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지원 내용

구분	시민 참여 모임(동아리) 지원 사업	
사업 목적	- 시민주도의 자발적·능동적·일상적 지역사회 참여 활동과 자율적인 사회참여 모임 활성화 - 서울시민의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계기 마련 - 내 생각을 바꾸는 배움, 내 주변을 바꾸는 실천 계기 마련, 민주주의 학습문화 조성	
지원 내용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학습하고 실천하는 동아리 활동비	
사업 기간	5개월	
지원금	각 동아리 당, 활동비 최대 1,200,000원	
모집분야	학 습 동아리	- 내 삶을 바꾸는 배움 - 주제 선정 학습: 민주주의, 인권, 헌법 등 - 민주주의의 방법·기술: 퍼실리테이션, 토론
	사회참여 동아리	- 내 주변을 바꾸는 실천 - 학교, 일터, 마을 등 내 주변을 바꾸는 실천을 모색하는 모임 - 내 주변의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모임
	단체 연계형 동아리	- 시민학습 프로그램 참가자 후속모임 - 서울시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의 2017 시민학습 프로그램 선정 사업 참가자의 후속 동아리

○ 지원금 관련

[표 II-12]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지원금 개요

구분	내용
출처	서울시 보조금
사용 항목	소모성 물품 구입비(도서구입 등), 홍보 인쇄비, 임차료(대관 등), 식비 및 다과비, 교육비(관련 교육 참가비), 활동비성 경비(회의 참석비, 원고비, 강사비)
사용 및 결산 방법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우리은행 보조금)

⑤ 서울창업허브

○ 기관 연혁: 2015년

○ 설립 목적

- 기업, 투자자, 고객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내 최대 플랫폼 구축, 창업가가 모이고, 즐기고, 교류하는 공간으로의 업그레이드

○ 지원 내용

[표 II-13] 서울창업허브 지원 내용

구분	서울 창업허브 대학생 창업동아리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사업 목적	- 선정 동아리(팀) 보유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성공 가능성 확대 - 시 창업센터 보육기업 및 전문가 매칭을 통한 시장 중심의 창업 역량 강화 - 해외 스타트업 IR 컨퍼런스 참가를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트업 시장 경험	
지원 내용	시제품 제작 지원	설계 및 개발 용역
	디자인 제작 지원	제품, 패키지 제작
	홈페이지 제작 지원	Web/Mobile 홈페이지 제작
	애플리케이션 제작 지원	IOS/Android 애플리케이션 제작
	App·Web 개발 교육비 지원	팀당 최대 100만 원 한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등 사업 관련 리서치, 온·오프라인 홍보비
	홍보물 제작 지원	브로슈어, 카탈로그, 동영상 제작
	지식재산권 확보 비용	특허, 실용실안, 상표등록, 디자인 등록 출원 등
	컨설팅 용역 지원	회계, 법률, 경영, B/M, 기술 등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 부스비
사업 기간	9개월	
지원금	커뮤니티 팀 당 최대 350만 원	

○ 지원금 관련

[표 II-14] 서울창업허브 지원금 개요

구분	내용
출처	서울시 출연금
사용 항목	제작 지원비, 시장조사 등 사업 관련 리서치, 온·오프라인 홍보비 등*
사용 및 결산 방법	지출 내역 영수증 처리(세금계산서)

*교통비, 항공료, 다과비 등 창업과 관련이 낮은 지출을 금하고 있음.

[표 II-15] 커뮤니티 유사 사업 종합

기관명	사업 목적	자격 제한	지원금	지원 내용	사업 지역	특이사항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	- 주민의 필요에 따라 주민이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 공동체 서울 실현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이웃 간의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회복	- 서울에 거주 중인 주민 3명 이상 - 연령 제한 없음	100~200만 원 이내	경제 공동체	서울	씨앗 단계, 새싹 단계, 희망 단계, 자립 단계로 구분하여 마을 공동체의 성장 정도에 따라 필요한 자원 제공
				문화 공동체		
				주거 공동체		
				돌봄 공동체		
				통합형		
				-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 성인, 주민, 이용 고객의 공동체 형성 지원 - 생활밀착형 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 - 이파트 마을 공동체 발굴, 지원 및 확산 지원 - 커뮤니티 활동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확대를 위한 모임 지원 - 주민 주도 마을계획 수립 지원		
서울 여성 가족 재단 (여성 발전 센터)	- 지역기반 여성의 풀뿌리 활동 활성화 - 여성 시민의 공유 공간 활성화 및 여성 시민이 주인인 공간 구성	- 센터 교육생 포함 - 만 18세 이상 여성		- 교육 및 취업지원 - 공간 및 물품 제공 - 타 기관 동아리 및 지역 행사 연계 사업	서울	여성발전센터는 중부, 동부, 북부, 서부센터로 구분되며, 각 센터별로 지원 내용 및 자격 상이

기관명	사업 목적	자격 제한	지원금	지원 내용	사업 지역	특이사항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학술 동아리 지원 사업 - 일상 속 자발적인 학습과 공동체 실천을 함께 하는 지속적인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거주 및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인 시민 최소 3명 연령 제한 없음	60만 원 내외	- 학습 소모임 강장을 위한 학습비 지원 - 학습 소모임 및 시민기화단 활동 지원을 위한 위크숍, 세미나 - 포럼 등의 운영비 지원 - 자원봉사교육 및 활동지원 - 활동 공간 제공 - 커뮤니티 활동비 지원 - 컨설팅 지원 - 활동 실적에 따른 이벤트 지원	서울	
	모두의 학교 커뮤니티 지원 사업 - 시민들에게 학습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경험 공유 및 조직 기회 제공을 통해 시민 주도의 모두의 학교 학습문화 활성화 도모		40만 원 내외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 민주 시민 교육 기반 조성과 시민주도의 실천형 민주 시민 교육활동 지원 - 등을 통해 삶 속에서 민주주의 의식 함양과 더불어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서울시 거주 또는 재학·재직 중인 시민 5명 이상 연령 제한 없음	최대 100만 원	- 사회참여 활동 지원 - 위크숍 및 공유대회를 통한 동아리와 단체 간의 교류 지원 - 동아리 활동 소개를 통한 정보 및 사례 공유 지원 - 활동비 지원	서울	- 지원 동아리는 학습, 사회참여, 단체연계형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동아리마다 목표가 상이함
서울창업허브	- 기업, 투자자, 고객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대 플랫폼 구축 - 선정 동아리(팀) 보유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창업 성공 가능성 확대 - 시 창업센터 보육기업 및 전문가 매칭을 통한 시장 중심의 창업 역량 강화 - 해외 스타트업 IR 컨퍼런스 참가를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트업 시장 경험	서울 소재 대학 공·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3인 이상 연령 제한 없음	최대 750만 원	- 보유 아이템을 사업화할 수 있는 사업화·제품화 비용(동아리 당 최대 350만 원) - 해외 스타트업 IR 컨퍼런스 참가 비용(동아리 당 최대 350만 원) - 전문가 매칭을 통한 허브 전문 멘토링	서울	

2) 유사 기관의 특성

○ 기관 및 사업 목적에 근거한 커뮤니티 운영

- 기관의 설립 목적에 근거한 커뮤니티 운영이 이루어지며, 시민 주도적 커뮤니티를 통해 기관 목적의 극대화를 추구함.
- 각 기관마다 정책협의, 창업, 교육/학습, 공동체 조성 등 특정한 목적이 있음.

○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경우, 공동
- 단체의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 내용이 차별을 두어 맞춤형 주민지원의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공동체 성장 단계와 더불어 모임 형성 지원, 활동 지원, 공간 지원, 모임 간 연계 지원, 종합적 마을계획 수립 지원 등으로 사업을 구분하여, 전체 단위사업들이 단계적 지원 전략에 따라 운용되도록 함.

○ 실천 중심 커뮤니티 지향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에서는 커뮤니티 활동 사업 계획 시 실천 활동을 필수로 구성하도록 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함.
- 캠페인, 봉사활동, 민주 시민 교육 관련 강좌 및 행사 참여, 지역사회 참여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자본 축적을 장려함.

○ 기관 프로그램 연계형 커뮤니티 지원

- 여성가족재단의 여성 발전센터에서는 센터에서 실시되는 교육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을 대상으로 동아리 형성을 지원함.
- 이는 교육 수강생 및 수료생들이 모여 학습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취업 및 창업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센터 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함.

3) 서울시 50+커뮤니티의 특성

○ 커뮤니티 결성의 용이성

- 다양한 사업(상담, 보람일자리, 교육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결성을 추천하고 있는 바, 커뮤니티 결성의 기반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지속적인 커뮤니티 지원

- 커뮤니티 별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사후관리에 힘씀.
- 커뮤니티 결성 후에도 커뮤니티 지원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커뮤니티의 연장 희망 여부에 따라 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차년도에도 참여가 가능함.

○ 공간 제공

- 50+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모임을 위한 공간 및 인프라를 지원함.
- 수료생, 커뮤니티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인 아지트 공간을 확대·제공하고 있음.

○ 커뮤니티 지원단

- 커뮤니티 운영과 관련된 자문, 활동 지원, 동기부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커뮤니티 지원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커뮤니티 간 소통의 장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업과 상생을 유도함.

○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

- 캠퍼스에서 배우고 익힌 수강생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커뮤니티를 통해 마련하여 50+당사자들이 주도하는 일상의 문화 확산을 지원함.

○ 커뮤니티 활동 무대 제공 및 활동성과 공유

- 캠퍼스별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거나, 커뮤니티 학교 등을 통해 커뮤니티 활동이 새로운 교육 콘텐츠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커뮤니티 각자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행사와 교육으로 연계되어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커뮤니티의 지속성 및 의미성 부여

4) 시사점

○ 공통점: 예산 출처

- 서울시 보조금 사용
- 연 1회 지원(활동기간: 3~5개월)
- 우리은행 보조금 정산 시스템 사용

○ 시사점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의 경우, 활동의 주제를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종교, 정치, 친목 모임 제외) 개별 커뮤니티의 흥미와 관심사에 따라 활동 주제와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따라서 50+세대의 특성을 표출할 수 있는 독자적인 주제 개발과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된 모든 커뮤니티에게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3개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커뮤니티 회원 수나 활동 범위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서울특별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씨앗기와 새싹기로 나누어 사업 기간과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바, 향후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도 이와 같이 커뮤니티의 특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 타 기관의 소모임 지원 사업과는 달리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커뮤니티 지원단, 사업설명회, 멘토단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더불어 커뮤니티 사례 공유회나 네트워크 파티, 커뮤니티 학교 등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을 타 커뮤니티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커뮤니티의 지속과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다만 현재의 경우 자문 내용이나 행사 기획이 커뮤니티 자문단 및 담당 PM의 경험과 역량에 의존하여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향후 단계별 자문 내용이나 참여 행사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제3장

50+커뮤니티 운영 현황

제1절 조사 설계

1. 조사 목적

- 『서울시50+커뮤니티 현황과 활성화 방안』의 조사 목적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했던 커뮤니티 대표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운영 현황과 활동상의 어려운 점 등을 확인하여 향후 커뮤니티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1) 조사개요

[표 III-1] 조사개요

구 분	본 조사
모집단	• 2016, 2017, 2018년도 상반기 기간 동안 50+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단체(커뮤니티) 374개(중복 제외)
표본추출방법	• 전수조사(전체 374개 중 70% 이상 응답 목표(약 262개))
표본크기	• 268개

〈표 계속〉

구 분	본 조사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Online-Survey) (일부 대면면접조사 및 전화조사 병행)
조사 대상자	커뮤니티 대표(대표의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총무)
조사 기간	2018년 10월 18일 ~ 11월 8일(총 23일간)
조사 기관	- 주관: 서울특별시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실사 및 자료 처리: 입소스 주식회사(Ipsos)

2) 조사 내용

○ 사전 면접 조사

- 설문조사에 앞서 조사 내용 선정을 위해 커뮤니티 지원단 3인과 각 캠퍼스 담당 PM을 대상으로 사전면접조사를 실시함.
- 사전면접조사를 통해 선정된 문항은 연구진 회의를 거쳐 수정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조사 내용은 (표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Ⅲ-2] 조사 내용

단 계		내 용
서울시50플러스 커뮤니티 기본 정보		- 커뮤니티 결성 시점 - 결성 당시 회원 수 - 총 참여 횟수 - 세부 회차별 참여 현황
커뮤니티 지속과 소멸		2018년도 50+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비참여 이유 - 커뮤니티가 소멸한 가장 큰 이유 - 커뮤니티 소멸 시기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중단 이유 - 커뮤니티 운영이나 활동 관련 주요한 변화
커뮤니티 구성원		- 커뮤니티 전체 회원 수 - 커뮤니티 주 활동 인원수 - 커뮤니티 대표 성별/연령대/경제적 수준/최종학력/거주 지역 비율
커뮤니티 활동 및 운영	가. 결성 계기	- 커뮤니티 결성 계기/50+캠퍼스 이용자의 커뮤니티 결성 계기 50+커뮤니티 플러스 지원 사업 참여 동기
	나. 활동 빈도	- 오프라인 모임 경험 여부/주기/월평균 횟수 - 타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및 교류 필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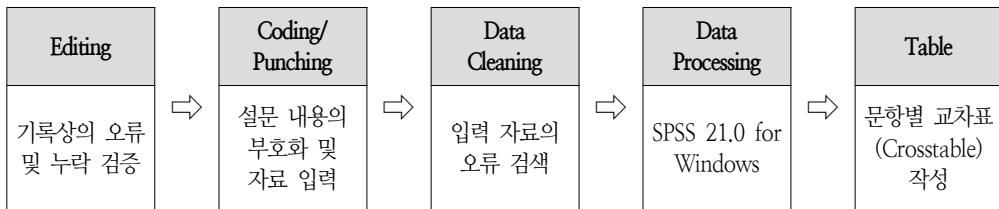
〈표 계속〉

단 계		내 용
커뮤니티 활동 및 운영	나. 활동 빈도	• 현재 타 커뮤니티 정기/비정기적 교류 여부 및 서울시 50+와의 연관성 • 타 커뮤니티와 정기/비정기적 교류 희망 여부 • 타 커뮤니티와 정기/비정기적 교류 희망하는 이유/희망하지 않는 이유 • 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회원 유무
	다. 활동 지역 및 내용	• 커뮤니티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주된 활동 장소 • 커뮤니티 활동 내용이나 활동처 탐색 경로 •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 내용 • 커뮤니티 설정 목표 •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정책 참여 경험 • 결성 초기 커뮤니티 유형 • 결성 초기 대비 현재 커뮤니티 유형 변경 여부 및 변경된 커뮤니티 유형 • 커뮤니티의 현재 유형이 변경된 이유
커뮤니티 활동 및 운영	라. 회원관리	• 현 신규 회원 가입신청 접수 여부 • 향후 신규 회원가입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신규 회원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 • 커뮤니티 회원들 간 친목도모 활동의 활발 정도 • 커뮤니티 구성원과 갈등 상황 경험 여부/갈등 원인/갈등 이후 현재 상황 • 커뮤니티 회원 간의 관계
	마. 경비 및 지원금	• 오프라인 모임 1회 평균 지출 비용/운영경비 조달 경로 • 커뮤니티 운영 경비 사용 비율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외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지원 여부 • 지원받는 기관명 및 월평균 지원금액 규모 • 서울시 50+ 지원금 정산 과정 만족도 • 지원금 정산 과정 불편사항 • 서울시 50+지원금 차등 지급 동의 정도
	바. 커뮤니티 운영	• 커뮤니티 운영 애로사항 • 커뮤니티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 향후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커뮤니티 플러스 지원 사업 참여 강점 • 50+커뮤니티 지속이나 활성화 위한 필요 정도 • 현 커뮤니티 운영 평가 • 내년도 커뮤니티 운영과 활동 지속 여부 •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50+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비참여 이유/커뮤니티를 없애려는 가장 큰 이유
	사. 커뮤니티 활동 이후 삶의 만족도	• 50+커뮤니티 이후 삶의 만족도 변화 • 50+커뮤니티 활동의 의미
50+커뮤니티 활성화의 의미와 지향점		• 커뮤니티 활성화 의미에 대한 항목별 동의 정도 • 50+커뮤니티 활동의 지향점 항목별 동의 정도

3. 자료 처리 과정 및 분석 방법

1) 자료처리 과정

- 수집된 자료는 coding, punching, editing 과정을 거쳐 SPSS 21.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산 처리함



2) 분석 방법

- 열(Row)에 따라 모든 백분율(%)을 산출함
- 복수응답의 경우, 카테고리의 사례수를 전체 사례수에 근거하여 백분율을 산출함
- 자료는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교차 분석되었음
- 평균값이 필요한 경우 cross tabulation에서 평균값 산출함
- 자료 해석상의 유의점
 - 표본조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의 관찰치 (Observed Percentage)에 따른 표본오차(Sampling Error)를 고려해야 함.
 - 사례수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n < 30$) 극단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값 또는 세부 집단 간 비교 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함.

4. 응답 커뮤니티 특성

1) 유효 표본 수는 총 268개임

[표 III-3] 응답현황

(n=268, 단위: 개, %)

구 분		사례수	비율
참여 연도별	2016년	77	28.7
	2017년	117	43.7
	2018년	74	27.6
참여 캠퍼스별	서부	154	57.5
	중부	81	30.2
	남부	33	12.3
참여 횟수	1회	207	77.2
	2회 이상	61	22.8
참여 유형별	2018년도 참여 중	106	39.6
	2108도 비참여, 모임 활동 지속	98	36.6
	커뮤니티 활동 중단	64	23.9
회원 규모별 (현재)	10명 미만	117	43.7
	10명 이상	87	32.5
	비해당(소멸)	64	23.9
결성 계기별	50+캠퍼스 이용자	90	33.6
	50+센터 활동 커뮤니티	39	14.6
	50+재단과 상관없음	75	28.0
	비해당(활동 중단)	64	23.9
커뮤니티 유형(결성 초기)	일	23	8.6
	문화	55	20.5
	학습	66	24.6
	사회 공헌	60	22.4
	비해당(활동 중단)	64	23.9
커뮤니티 유형(현재)	일	32	11.9
	문화	54	20.1
	학습	53	19.8
	사회 공헌	65	24.3
	비해당(활동 중단)	64	23.9
전 체		268	100.0

제2절 서울시50+커뮤니티 운영 현황

1. 커뮤니티 대표자 현황

○ 커뮤니티 대표의 성별

- 현재 커뮤니티의 대표를 맡고 있는 대표자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이 136명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하여 남성(68명, 33.4%)의 약 두 배로 나타남.

[표 III-4] 커뮤니티 회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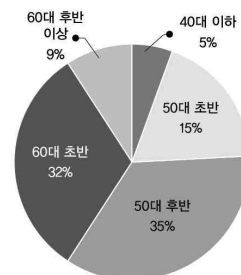
	인원	비율
남성	68	33.4
여성	136	66.6
합계	204	100

○ 연령

- 커뮤니티 회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 후반’이 72명(35.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대 초반’ 65명(31.8%), ‘50대 초반’ 38명(18.4%), ‘60대 후반 이상’ 18명(8.9%), ‘40대 이하’ 11명(5.7%) 순으로 나타남.
- 50+커뮤니티지만 타 연령대의 참여를 제지하지 않으며, 따라서 40대 이하부터 60대 후반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표 III-5] 커뮤니티 대표자 연령

	인원	비율
40대 이하	11	5.6
50대 초반	38	18.7
50대 후반	72	35.1
60대 초반	65	31.7
60대 후반 이상	18	8.9
합계	204	91.1



[그림 III-1] 커뮤니티 대표자 연령(n=204)

2. 커뮤니티 결성과 지속, 활동 중단

※ 커뮤니티의 결성과 지속 현황은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서울시50+서부, 중부, 남부 캠퍼스에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선정된 커뮤니티 플러스 참가 신청서에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1) 커뮤니티 결성

○ 연도별, 캠퍼스별 커뮤니티 수(누적)

-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선정되어 지원금을 받은 경우를 “커뮤니티가 결성”된 것으로 보고자 함.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이 시작된 2016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결성된 누적 커뮤니티 수는 총 447개임.
- 전체 커뮤니티 중 연도별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이 45.0%로 가장 높았고(201개), 다음으로 2016년 29.1%(130개), 2018년 26%(116개) 순으로 나타남.
- 캠퍼스별로는 서부가 57.7%(258개)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부 33.8%(151개), 남부 8.5%(38개) 순으로 나타남.
- 서울시 50+캠퍼스는 2016년 서부캠퍼스를 시작으로 2017년 중부, 2018년 남부캠퍼스가 차례로 문을 열었음. 따라서 연도별로 각 캠퍼스에서 활동한 커뮤니티의 개수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2016년의 경우 서부캠퍼스만 해당되며, 2017년의 경우 서부캠퍼스에서 92개, 중부캠퍼스에서 109개의 커뮤니티가 활동하였음.
- 2018년에는 서부캠퍼스 36개, 중부캠퍼스 42개, 남부캠퍼스 38개 커뮤니티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 -6] 연도별/캠퍼스별 커뮤니티 개수(선정 커뮤니티 전체)

(단위: 개, %)

	2016	2017	2018	계
서부	130	92	36	258 (57.7)
중부	-	109	42	151 (33.8)
남부	-	-	38	38 (8.5)
합계	130 (29.1)	201 (45.0)	116 (26.0)	447 (100)

○ 연도별, 캠퍼스별 커뮤니티 수(중복 제외)

- 커뮤니티 이름을 기준으로 중복 참여한 커뮤니티를 제거한 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 참여 커뮤니티 수는 총 412개임.
- 참여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130개(31.6%), 2017년 166개(40.3%), 2018년 116개(28.2%)임. 단, 본 조사는 2018년 6월까지의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2018년도 참여 커뮤니티 수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됨.
- 참여 캠퍼스별 분포를 보면 서부가 246개(59.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중부 128개(31.1%), 남부 38개(9.2%)로 나타남.
- 연도 및 캠퍼스별 커뮤니티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서부와 중부 각각 80개, 86개 커뮤니티가 활동하였고, 2018년에는 서부, 중부 남부 캠퍼스에서 각각 36개, 42개, 38개 커뮤니티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 -7] 연도별/캠퍼스별 커뮤니티 개수(중복 제외)

(단위: 개, %)

	2016	2017	2018	계
서부	130	80	36	246 (59.7)
중부	-	86	42	128 (31.1)
남부	-	-	38	38 (9.2)
합계	130 (31.6)	166 (40.3)	116 (28.2)	412 (100)

2) 커뮤니티 지속

○ 커뮤니티 연장 신청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커뮤니티 중 활동이 우수한 커뮤니티는 연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음. 연장 심사에 선정된 커뮤니티는 3~5개월간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기간이 연장되며, 기존에 받았던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25~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음.
- 2016년에 서부 캠퍼스에서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커뮤니티는 총 92개로, 그중 연장 신청을 한 커뮤니티는 22개(22.2%)였음.
- 2017년에는 서부캠퍼스와 중부캠퍼스에서 각각 80개, 86개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였음. 서부캠퍼스의 경우 30%인 24개 커뮤니티가, 중부캠퍼스의 경우 11.6%인 10개 커뮤니티가 연장 신청을 하여 선정되었음.

[표 III-8] 연장 신청 커뮤니티 개수

(단위: 개, %)

	2016			2017		
	개설	연장	연장신청 비율	개설	연장	연장신청 비율
서부	92	22	22.2	80	24	30.0
중부	-	-	-	86	10	11.6

○ 커뮤니티 플러스 참여 기간

- 2018년도에 신규로 결성된 커뮤니티를 제외한 278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는 [표 III-9]에 제시된 바와 같음.
- 분석 대상인 278개 커뮤니티는 2016년, 2017년에 각각 결성된 커뮤니티로, 이들 중 88.5%인 246개는 결성되던 해에만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커뮤니티는 총 32개로, 2년 연속으로 참여한 커뮤니티는 29개(10.4%), 3년 연속으로 참여한 커뮤니티는 3개(1.1%)였음.

- 본 조사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수행하는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며,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여부로 해당 커뮤니티의 활동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 커뮤니티 플러스 지원금을 수령한 커뮤니티 중 더 이상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커뮤니티가 현재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지, 중단했는지 파악하여 커뮤니티의 성장 특성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표 III-9] 커뮤니티 플러스 참여 기간

(n=278,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1년	246	88.5
2년	29	10.4
3년	3	1.1
합계	278	100

○ 커뮤니티 대표 변경 여부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2개년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한 커뮤니티 32개를 대상으로 대표자 변경 여부를 조사함.
- 대표자가 유지된 커뮤니티는 21개(64.7%), 대표자가 변경된 커뮤니티는 11개(35.3%)로 나타남.

[표 III-10] 커뮤니티 대표 변경 여부

(n=32,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대표자 유지	21	64.7
대표자 변경	11	35.3
합계	32	100.0

3) 커뮤니티 중단

○ 커뮤니티 플러스 참여 중단 이후 활동

- 앞서 살펴본 ‘커뮤니티 플러스 참여 기간’에서 기 결정되었던 커뮤니티의 88.5%는 익년도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를 중단한 이후 커뮤니티의 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를 중단했다고 응답한 162개 커뮤니티 중 60.5%인 98개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는 중단했으나, 커뮤니티 활동은 지속하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음.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를 중단한 커뮤니티 162개 중 64개(39.5%)는 ‘모임 활동(커뮤니티) 자체가 소멸했다’고 응답하였음.

[표 III-11] 커뮤니티 플러스 참여 중단 이후 활동

(n=162, 단위: 개, %)

커뮤니티 플러스 참여 중단 이후 활동	커뮤니티 수	비율
커뮤니티는 지속	98	60.5
커뮤니티 활동 중단	64	39.5
합계	162	100

○ 커뮤니티 해체 소요 기간

- 커뮤니티가 해체된 경우, 커뮤니티 결성 이후 해체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7.95개월임.

○ 커뮤니티 해체 사유

- 커뮤니티가 해체된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면,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음’이 24개(37.5%)로 가장 많았음.
- ‘커뮤니티 결성 초기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기 때문’이 14개(21.9%), ‘임원진(대표 혹은 총무)에게 다른 일이 생겨서’ 13개(2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사유는 커뮤니티의 지속을 위해 중요한 요인으로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커뮤니티의 지속을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커뮤니티의 변화나 성장에 맞는 새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아울러 임원진의 개인 사유가 커뮤니티의 해체 원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커뮤니티가 임원진(대표나 총무)에게 의존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커뮤니티 구성원 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특정인이 혼자서 이끌어가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는 커뮤니티 해체 사유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회원들의 참여 저조’와도 유사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커뮤니티 구성원 간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중요함.

[표 III-12] 커뮤니티 해체 사유

(n=6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활동 지속 불가	24	37.5
커뮤니티 결성 초기 목표 달성	14	21.9
임원진(대표 혹은 총무) 개인 사유	13	20.3
회비 등 재정 문제	5	7.8
회원 간 불화	2	3.1
기타	6	9.4
합계	64	100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중단 사유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중단 사유를 살펴보면, ‘지원금 정산 관련 행정 처리가 불편해서’가 46.9%(46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커뮤니티 결성 초기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기 때문’과 ‘커뮤니티 지원금이 너무 소액이어서’(각 9.2%, 9개),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대해 불만족해서(지원금, 공간, 기타)’(8.2%, 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13]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중단 사유

(n=98,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
지원금 정산 관련 행정 처리 불편	46	46.8
커뮤니티 결성 초기 목표 달성	9	9.2
커뮤니티 지원금이 적어서	9	9.2
사업 불만족	8	8.2
캠퍼스 관계자 및 지원단의 지나친 관여	4	4.1
모임 횟수 및 활동인원 감소	4	4.1
중복지원 불가	3	3.1
기타	15	15.3
합계	98	100

3. 커뮤니티 활동

1) 커뮤니티 활동 내력

○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커뮤니티들이 기존부터 활동하던 모임인지, 재단의 사업으로 새롭게 결성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커뮤니티 활동 내력을 조사해본 결과는 [표 III-14]와 같음.

- 전체 응답 커뮤니티 204개 중 ‘50+캠퍼스 이용자’가 모인 커뮤니티가 총 90개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재단과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활동해오던 동호회’가 75개(36.8%), ‘50+센터에서 활동하던 커뮤니티’ 39개(19.1%) 순으로 나타남.

[표 III-14] 커뮤니티 활동 내력

(n=204,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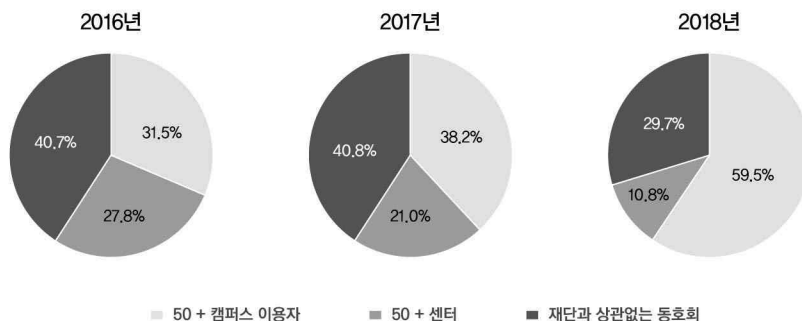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50+캠퍼스 이용자	90	44.1
50+센터에서 활동하던 커뮤니티	39	19.1
50+재단과 상관없이 전부터 활동하던 동호회	75	36.8
합계	204	100

- 연도별로 커뮤니티의 활동 내력에서 다소의 차이가 발견되었음(표 Ⅲ-15).
- ‘50+재단과 상관없이 전부터 활동하던 동호회’의 경우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초기인 2016년에는 전체 커뮤니티의 40.7%를 차지했던 반면 2018년에는 29.7%로 감소함.
- ‘50+캠퍼스 이용자’의 비율은 2016년 31.5%에서 2017년 38.2%, 2018년 59.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표 Ⅲ-15] 커뮤니티 활동 내력(연도별)

단위: 개(%)

활동 내력	2016년	2017년	2018년	계
50+캠퍼스 이용자	17 (31.5)	29 (38.2)	44 (59.5)	90
50+센터에서 활동하던 커뮤니티	22 (27.8)	31 (21.0)	22 (10.8)	75
50+재단과 상관없이 전부터 활동하던 동호회	15 (40.7)	16 (40.8)	8 (29.7)	39
합계	54 (100)	76 (100)	74 (100)	204



[그림 Ⅲ-2] 커뮤니티 활동 내력(연도별)

2) 50+캠퍼스 이용자의 커뮤니티 결성 계기

- 50+캠퍼스 이용자의 커뮤니티 결성 계기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수강을 통한 커뮤니티 결성’이 63.3%(129개)로 가장 높게 나타나 캠퍼스의 교육 프로그램이 커뮤니티 활동으로의 강력한 연계 유인임을 알 수 있음.

- 그밖에 ‘구성원 간 협의와 요청’(17.8%, 36개),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를 계기로 커뮤니티 결성’(8.9%, 18개) 등이 커뮤니티 결성 계기로 제시됨.

[표 III-16] 50+캠퍼스 이용자의 커뮤니티 결성 계기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교육과정 수강을 통한 커뮤니티 결성	129	63.3
구성원 간 협의와 요청	36	17.8
보람일자리사업 참여 이후 결성	18	8.9
커뮤니티 지원단의 권유	14	6.7
캠퍼스 담당 PM의 권유	4	2.2
지인의 추천	2	1.1
합계	204	100

3)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동기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지원금이 있어서’라고 응답한 커뮤니티가 전체의 49.0%(10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간이 지원돼서’(24.0%, 49개), ‘50플러스 타 커뮤니티들과의 교류가 원활해서’(14.7%, 3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절반에 가까운 커뮤니티가 지원금을 동기로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이 커뮤니티 결성의 중요한 유인책을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 아울러 공간 지원 역시도 50+세대의 커뮤니티 활동에서 중요한 유인임.

[표 III-17]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동기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지원금이 있어서	100	49.0
공간이 지원되어서	49	24.0
50+타 커뮤니티의 교류가 원활해서	30	14.7
회원 모집이 용이해서	4	2.0
회원 간의 교류가 필요해서	4	2.0
경력개발을 위한 협의체로 성장하고 싶어서	2	1.0
모임 활성화를 위해	4	2.0
기타	11	5.4
합계	204	100

4) 커뮤니티 유형

○ 커뮤니티 활동의 주요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분류한 커뮤니티 유형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이 시작된 2016년부터 해마다 변경되어 왔음.

- 2016년에는 사회 공헌, 사회적 관계, 여가, 건강, 일자리/노동, 가족, 재무, 기타 8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2017년에는 공익/사회 공헌, 학습/연구, 문화/창작, 일 탐색/경력개발, 기타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음.
- 2018년에는 학습, 일, 문화, 사회 공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함.

○ 2016년도 커뮤니티 유형

- 2016년도에는 서울시50+서부캠퍼스만 운영되었으며,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커뮤니티는 총 130개임.
- 2016년도에는 커뮤니티의 유형을 크게 8가지(사회 공헌, 사회적 관계, 여가, 건강, 일자리/노동, 가족, 재무, 기타)로 구분하였음. 아울러, 커뮤니티 플러스 참가 신청서에 커뮤니티 유형을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커뮤니티 유형별 분포는 사회 공헌이 61개(3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 48개(24%), 여가 30개(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 -18] 2016년도 커뮤니티 유형 및 유형별 분포

(n=200, 단위: 개, %)

유형	개	비율
사회 공헌	61	30.5
사회적 관계	48	24
여가	30	15
건강	21	10.5
일자리/노동	16	8
가족	8	4
재무	3	1.5
기타	13	6.5
합계	200	100

○ 2017년도 커뮤니티 유형

- 2017년도에는 서울시50+서부캠퍼스에 이어 중부캠퍼스가 개관하면서 2개 캠퍼스에서 각각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이 운영되었음.
- 2017년도에는 커뮤니티의 유형이 공익/사회 공헌, 학습/연구, 문화/창작, 일 탐색/경력개발, 기타 등 총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음. 아울러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가 신청서에 커뮤니티의 유형을 구분할 때 5개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음.
- 서부캠퍼스의 경우 총 92개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40개(43.5%) 커뮤니티가 공익/사회 공헌 유형에 속하였음. 다음으로는 학습/연구 21개(22.8%), 문화/창작 18개(1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부캠퍼스에서는 총 109개의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공익/사회 공헌 유형에 집중되어있는 서부캠퍼스와는 달리 기타를 제외한 4개 영역에 고른 분포를 보임.
- 특히, 일 탐색/경력개발 유형이 28개(2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공익/사회 공헌은 27개(24.8%)로 그다음을 차지하였음.

[표 III-19] 2017년도 커뮤니티 유형 및 유형별 분포

단위: 개(%)

구분	공익/ 사회 공헌	학습/연구	문화/창작	일 탐색/ 경력개발	기타	계
서부	40 (43.5)	21 (22.8)	18 (19.6)	13 (14.1)	0 (0.0)	92 (100)
중부	27 (24.8)	25 (22.9)	26 (23.9)	28 (25.7)	3 (2.8)	109 (100)
합계	67 (33.3)	46 (22.9)	44 (21.9)	41 (20.4)	3 (1.5)	201 (100)

○ 2018년도 커뮤니티 유형

- 2018년도에는 서울시50+서부캠퍼스와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등 세 개 캠퍼스에서 각각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이 운영되었음.
- 2018년도에는 커뮤니티 유형이 학습, 일, 문화, 사회 공헌 네 가지로 분류되었음.
- 서부캠퍼스의 경우 전체 36개 커뮤니티 중 일 11개(30.6%), 학습 10개(27.8%), 문화 8개(22.2%), 사회 공헌 7개(19.4%)의 순으로 나타남.
- 중부캠퍼스에서는 전체 42개 커뮤니티 중 일 15개(35.7%), 학습 10개(23.8%), 문화 9개(21.4%), 사회 공헌 8개(19.0%)가 활동함.
- 남부캠퍼스의 경우 전체 38개 커뮤니티 중 문화 유형이 14개(36.8%)로 가장 많았고, 학습 12개(31.6%), 사회 공헌 7개(18.4%), 일 5개(13.2%)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20] 2018년도 커뮤니티 유형 및 유형별 분포

단위: 개(%)

구분	학습	일	문화	사회 공헌	계
서부	10 (27.8)	11 (30.6)	8 (22.2)	7 (19.4)	36 (100)
중부	10 (23.8)	15 (35.7)	9 (21.4)	8 (19.0)	42 (100)
남부	12 (31.6)	5 (13.2)	14 (36.8)	7 (18.4)	38 (100)
합계	32 (27.6)	31 (26.7)	31 (26.7)	22 (19.0)	116 (100)

5) 활동 빈도

○ 모임 빈도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커뮤니티들이 활동을 위해 모임을 갖는 횟수는 월평균 3.25회임.

○ 모임 주기

- 정기적인 모임 주기를 살펴보면, ‘주간’이 34.4%(64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격주간’ 26.3%(49개), ‘부정기적으로 모임’ 19.9%(37개), ‘월간’ 19.4%(36개) 순으로 나타남.

[표 III -21] 커뮤니티 활동 빈도

(n=186,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주간	64	34.4
격주간	49	26.3
비정기적	37	19.9
월간	36	19.4
합계	186	100

- 참여 연도별로 ‘2017년’(3.51회), 참여 캠퍼스별로 ‘남부’(3.67회), 참여 횟수별로 ‘1회’(3.40회), 참여 유형별로 ’18년도 비참여, 모임 지속’(3.31회), 커뮤니티 유형별로 ‘문화’(3.57회)에서 정기모임 월평균 횟수가 높게 나타남.

6)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 타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의 필요 정도

- 타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필요 정도는 5점 만점 중 3.65점으로, 다른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이나 자원 등의 정보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타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필요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204개 커뮤니티 중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커뮤니티가 24개(11.8%), ‘필요하다’ 100개(49%)로, 타 커뮤니티의 정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60%를 넘어섬.

[표 III-22] 타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의 필요 정도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평균
매우 필요하다 (5점)	24	11.8	3.65점
필요하다 (4점)	100	49	
보통 (3점)	66	32.4	
필요 없다 (2점)	13	6.4	
전혀 필요 없다(1점)	1	0.5	
합계	204	100	

○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필요 정도

-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필요 정도는 5점 만점 중 3.55점임.
-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필요 정도를 살펴보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커뮤니티가 21개로 전체의 10.3%, ‘필요하다’는 93개(45.6%)로 절반이 넘는 커뮤니티가 다른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음.

[표 III-23]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필요 정도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평균
매우 필요하다 (5점)	21	10.3	3.55점
필요하다 (4점)	93	45.6	
보통 (3점)	59	28.9	
필요 없다 (2점)	30	14.7	
전혀 필요 없다(1점)	1	0.5	
합계	204	100	

○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여부

- 현재 타 커뮤니티와 정기적·비정기적 교류를 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응답 커뮤니티 전체 204개 중 73개로 35.8%에 그쳤고,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커뮤니티가 131개로 전체의 64.2%를 차지하였음.

[표 III-24]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여부

(n=204, 단위: 개, %)

교류 여부	커뮤니티 수	비율
그렇다	73	35.8
아니다	131	64.2
합계	204	100

- 타 커뮤니티와 교류 중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교류 중인 커뮤니티의 특성을 조사해본 결과,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 내의 타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커뮤니티가 34개(12.7%), 재단과 관련 없는 다른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커뮤니티가 18개(6.7%), 서울시 50+캠퍼스 내외 모두와 교류하는 커뮤니티가 21개(7.8%)였음.
- 절반에 가까운 커뮤니티가 캠퍼스 내의 타 커뮤니티와 교류를 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와 교류 기회 제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III-25] 교류 대상 커뮤니티의 특성

(n=204, 단위: 개, %)

교류 대상 커뮤니티의 특성	커뮤니티 수	비율
서울시50+캠퍼스 내 타 커뮤니티	34	46.5
서울시50+캠퍼스와 관계없는 타 커뮤니티	18	24.7
둘 다	21	28.8
계	204	100

○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희망 여부

- 현재 타 커뮤니티와 정기적·비정기적 교류를 희망하는 커뮤니티는 129개(63.2%)로, 커뮤니티 10개 중 6개는 타 커뮤니티와 교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26]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희망 여부

(n=204, 단위: 개, %)

교류 희망 여부	커뮤니티 수	비율
그렇다	129	63.2
아니다	75	36.8
합계	204	100

○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희망 이유

-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129개 커뮤니티 대표를 대상으로 교류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음[표 III-27].
- 타 커뮤니티와 교류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교류하고자 한다는 응답이 58개(52.7%)고 가장 많았으며,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 및 커뮤니티 활동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응답이 27개(24.5%)로 그다음을 차지함.
- 타 커뮤니티와의 협업이나 협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류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커뮤니티는 20개(18.2%)였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악기 연습이나 봉사활동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었음.

[표 III-27]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희망 이유

(n=110, 단위: 개, %)

교류 희망 이유	커뮤니티 수	비율
정보의 공유 및 교류	58	52.7
시너지 효과, 커뮤니티 활동의 발전	27	24.5
협업/협연	20	18.2
회원 확보 및 개인적 관계 형성	5	4.5
계	110	100.0

○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75개 커뮤니티 대표에게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표 Ⅲ-28], 22명(34.9%) 이 시간 제약을 그 이유로 꼽았음. 즉, 현재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위한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음.
- 그 외에 다른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 ‘독립적 성격’ 15개(23.8%), ‘교류의 필요성을 못 느낌’ 14개(22.2%), ‘현재 커뮤니티의 내실을 더 다져야 함’ 7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때 커뮤니티의 ‘독립적 성격’은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이나 목적이 고유하여 다른 커뮤니티와의 접점이 없음을 의미함.

[표 Ⅲ-28]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n=63, 단위: 개, %)

교류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	커뮤니티 수	비율
시간 제약(현재 활동 이외에 다른 시간을 내기 어려움)	22	34.9
독립적 성격(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 없음)	15	23.8
필요성 못 느낌	14	22.2
내실을 더 다져야 함	7	11.1
현재 커뮤니티 활동에 불만족	5	7.9
계	63	100

○ 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회원 유무

- 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회원이 있는 커뮤니티는 161개(78.9%)임.
- 본 조사는 커뮤니티 회원이 아닌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이므로, 실제로 몇 명의 회원이 몇 개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지는 알 수 없음.
- 그러나 상당수 커뮤니티에서 타 커뮤니티 활동을 병행하는 회원이 있다고 응답하였음을 감안하면 50+세대들은 특정 커뮤니티 하나에만 속해 활동하기보다는 흥미에 따라 여러 개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음.
- 향후 커뮤니티 회원 개인별로 몇 개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지 조사를 통해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표 III -29] 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회원 유무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있다	161	78.9
없다	43	21.1
합계	204	100

7) 활동 지역 및 내용

○ 커뮤니티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중복응답)

- 커뮤니티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서부캠퍼스’가 32.1%(94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부캠퍼스’ 24.2%(71개), ‘도심권50+센터’ 13.7%(40개), ‘남부캠퍼스’ 10.2%(30개), ‘동작50+센터’ 5.8%(17개), ‘영등포50+센터’ 5.5%(1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캠퍼스(서부, 중부, 남부)에서 시행하는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커뮤니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에 제시된 커뮤니티의 활동 기관은 캠퍼스뿐만 아니라 50+센터 및 기타로 다양했음.
- 이는 서울시 50+센터에서 결성된 커뮤니티들이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 캠퍼스 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캠퍼스에서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이후 거주지와 접근성이나 공간 사용 등의 이유로 활동은 타 기관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임.
-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커뮤니티 활동 기관이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음.

[표 III -30] 커뮤니티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

(n=293,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캠퍼스	서부	94	32.1
	중부	71	24.2
	남부	30	10.2
센터	도심권	40	13.7
	동작	17	5.8
	영등포	16	5.5
	노원	5	1.7
	서대문	4	1.4
기타	기타	16	5.4
합계		293	100

○ 커뮤니티 활동 내용이나 활동처 탐색 경로

- 앞서 살펴본 커뮤니티 활동 중단 사유나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관련 사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커뮤니티의 활동에 있어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활동 목표 설정은 커뮤니티의 지속과 발전에 중요한 요인임.
- 이에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이나 활동처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탐색 경로에 대해 조사하였음[표 Ⅲ-31].
- 조사 결과 커뮤니티 회원(69개, 33.8%)이나 대표(66개, 32.4%)가 탐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커뮤니티 지원단이나 담당 PM의 제안(22개, 10.8%)도 탐색 경로의 하나로 나타남.
- 사전면접조사 시 커뮤니티 회원과 대표 간 업무 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커뮤니티 대표에게 과중한 업무가 치중되는 경향이 커뮤니티 활동상의 어려움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 활동 내용이나 활동처 탐색에서는 비교적 공정한 역할 배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Ⅲ-31] 커뮤니티 활동 및 활동처 탐색 경로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커뮤니티 회원이 탐색	69	33.8
커뮤니티 대표가 탐색	66	32.4
활동 내용이나 활동처를 별도로 찾지 않음	26	12.7
커뮤니티 지원단이나 담당 PM의 제안	22	10.8
기타	21	10.3
합계	204	100

○ 지역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정책 참여 경험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1회 당 50만 원이며, 연간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운영자금 마련이나 활동 지역 확장을 위해서는 서울시 50+캠퍼스 이외의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지역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정책 참여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표 Ⅲ-32], 전체 응답 커뮤니티의 62.3%인 127개 커뮤니티에서 ‘없다’라고 응답함.
- 지역구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커뮤니티는 77개로 전체 응답 커뮤니티의 37.7%에 그쳤음.

[표 Ⅲ-32] 지역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정책 참여 경험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있다	77	37.7
없다	127	62.3
합계	204	100

8) 활동 유형

○ 결성 초기

- 커뮤니티의 분류 유형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이 시작된 2016년 이후 매년 변경되어왔음. 따라서 2016년, 2017년, 2018년에 각각 결성된 커뮤니티의 유형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쉽지 않음.
- 이에 커뮤니티 대표를 대상으로 ‘일’, ‘학습’, ‘사회 공헌’, ‘문화’의 네 가지 유형 중 커뮤니티의 결성 초기 성격과 가장 유사한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음.
- 조사 결과, 결성 초기 커뮤니티의 유형 분포는 ‘학습’이 32.3% (66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 공헌’ 29.4% (60개), ‘문화’ 27.0%(55개), ‘일’ 11.3% (23개) 순으로 나타남.

[표 Ⅲ-33] 결성 초기 활동 유형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일	23	11.3
학습	66	32.3
사회 공헌	60	29.4
문화	55	27.0
합계	204	100

- 커뮤니티 결성 초기의 활동 유형은 커뮤니티가 결성된 연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나타났는데(표 Ⅲ-34), 최근으로 올수록 ‘일’ 유형은 증가하는 반면 ‘사회 공헌’ 유형은 감소하였음.
-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 유형의 경우 2016년 3.7%에서 2017년 11.8%, 2018년 16.2%로 증가하였고, ‘사회 공헌’ 영역은 2016년 44.4%에서 2017년 27.6%, 2018년 20.3%로 감소함.

[표 III-34] 연도별 결성 초기 활동 유형

단위: 개(%)

	일	문화	학습	사회 공헌	전체
2016	2 (3.7)	14 (25.9)	14 (25.9)	24 (44.4)	54 (100)
2017	9 (11.8)	19 (25.0)	27 (35.5)	21 (27.6)	76 (100)
2018	12 (16.2)	22 (29.7)	25 (33.8)	15 (20.3)	74 (100)
전체	23 (11.3)	55 (27.0)	66 (32.4)	60 (29.4)	204 (100)

○ 결성 초기 대비 현재 활동 유형 변경 여부

- ‘결성 초기 이후 커뮤니티의 유형이 변경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동일하다’가 167개(81.9%), ‘변경되었다’가 37개(18.1%)로, 대부분의 경우 최초의 유형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됨.

[표 III-35] 커뮤니티 유형 변경 여부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동일하다	167	81.9
변경되었다	37	18.1
합계	204	100

○ 변경된 커뮤니티 유형

- 결성 초기 대비 현재의 변경된 커뮤니티 유형을 살펴보면, ‘사회 공헌’이 37.8% (14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 27.0% (10개), ‘문화’ 21.6% (8개), ‘학습’ 13.5% (5개) 순으로 나타남.

[표 III-36] 변경된 커뮤니티 유형

(n=37,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일	10	27.0
학습	5	13.5
사회 공헌	14	37.8
문화	8	21.6
합계	37	100

4. 커뮤니티 구성원

1) 회원 관리

○ 커뮤니티 구성원 수

-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회원 수는 평균 11.5명이었으며, 이 중 커뮤니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은 평균 7.9명이었음.

○ 신규 회원 허용 여부

- 신규 회원 가입 신청 접수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는 받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신규 회원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43.1%), ‘그렇다’(38.2%), ‘신규 회원은 받지 않는다’(18.6%) 순으로 나타남.
- 신규 회원을 받고 있거나 향후 가입을 허용할 예정인 커뮤니티가 각각 78개(38.2%), 88개(43.2%)로, 많은 수의 커뮤니티가 개방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II-37] 신규 회원 허용 여부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신규 회원 가입 받음	78	38.2
현재는 신규 회원을 받지 않지만 향후 가입 허용 예정	88	43.2
신규 회원 받지 않음	38	18.6
합계	204	100

○ 향후 신규 회원 가입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

- 현재는 신규 회원을 받지 않지만 향후 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88개 커뮤니티에 대해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커뮤니티 활동의 확대’가 88.6% (78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회원 가입비 등 경제적 사유로 신규 회원을 모집하겠다고 응답한 커뮤니티는 1개(1.1%)로 매우 적었음.

[표 Ⅲ-38] 향후 신규 회원가입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

(n=88,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커뮤니티 활동의 확대	78	88.6
경제적 지원 필요	1	1.1
기타	9	10.2

○ 신규 회원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

- 현재 신규 회원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38개 커뮤니티에 대해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이유로 ‘신규 회원을 받는 경우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간 학습/기술 등의 수준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가 44.7%(17개)를 차지함.
- 이외에 ‘커뮤니티 목적상 기 가입 회원 간의 협력이 중요해서’ 23.7%(9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39] 현재 신규 회원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

(n=38,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커뮤니티 목적상 기 가입 회원 간의 협력이 중요해서	9	23.7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간 수준 차이 발생 우려	17	44.7
기타	12	31.6
합계	38	100

2) 구성원 간 친목도모 활동

- 커뮤니티 구성원 간 친목도모 활동이 얼마나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로 조사한 결과[표 Ⅲ-40] 구성원 간 친목도모 활동은 평균 3.5점으로, 비교적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커뮤니티 회원들 간 친목도모 활동의 활발 정도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114개(55.9%), 그렇다(45.6%), 매우 그렇다(1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

- ‘보통’은 59개(28.9%), ‘그렇지 않다’ 30개(14.7%), 전혀 그렇지 않다 1개(0.5%)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 -40] 구성원 간 친목 도모의 활발 정도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평균
매우 그렇다 (5점)	21	10.3	3.5점
그렇다 (4점)	93	45.6	
보통 (3점)	59	28.9	
그렇지 않다 (2점)	30	14.7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1	0.5	
합계	204	100	

- 응답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참여 횟수별로 ‘2회 이상’(3.59점), 커뮤니티 유형별로 ‘사회 공헌’(3.75점)에서 커뮤니티 회원들 간 친목 도모 활동의 활발 정도 점수가 높게 나타남.

[표 III -41] 구성원 간 친목도모 활동의 활발 정도(참여 횟수별, 유형별)

(n=204, 단위: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참여 횟수	1회	150	0.7	16.7	28.0	44.0	10.7	3.47
	2회 이상	54	0.0	9.3	31.5	50.0	9.3	3.59
커뮤니티 유형 (현재)	일	32	0.0	21.9	37.5	37.5	3.1	3.22
	문화	54	0.0	13.0	35.2	42.6	9.3	3.48
	학습	53	0.0	18.9	30.2	43.4	7.5	3.40
	사회 공헌	65	1.5	9.2	18.5	53.8	16.9	3.75
전 체		204	0.5	14.7	28.9	45.6	10.3	3.50

3) 구성원과의 갈등

○ 구성원과의 갈등 경험 여부

- 커뮤니티 구성원과 갈등 상황 경험이 있는 커뮤니티는 38.7%로, 커뮤니티 10개 중 약 4개는 커뮤니티 구성원과 갈등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없다: 61.3%)

[표 III-42] 구성원과의 갈등 경험 여부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있다	79	38.7
없다	125	61.3
합계	204	100

○ 갈등 원인

- 커뮤니티 구성원 간 갈등 원인을 살펴보면, ‘현재 활동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39.2%(31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의 문제’ 24.1(19개),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의견 차이’ 21.5%(1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43] 갈등 원인

(n=79,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현재 활동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31	39.2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의 문제	19	24.1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의견 차이	17	21.5
지원금 사용의 문제	2	2.5
기타	10	12.7
합계	79	100

- 커뮤니티 구성원 간 갈등 원인의 분포는 커뮤니티의 활동 유형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발견되었음.

- 일 유형의 커뮤니티에서는 갈등의 원인 중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의 문제’와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각각 33.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현재 활동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다른 유형과 차이가 있었음.
- 문화 유형의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활동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갈등이 55.6%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

[표 III-44] 커뮤니티 내 갈등 원인(유형별)

(n=79, 단위: %)

구 분		현재 활동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의 문제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의견 차이	지원금 사용의 문제	기타	사례수
커뮤니티 유형 (현재)	일	26.7	33.3	33.3	0.0	6.7	15
	문화	55.6	11.1	11.1	5.6	16.7	18
	학습	33.3	16.7	22.2	5.6	22.2	18
	사회 공헌	39.3	32.1	21.4	0.0	7.1	28
전 체		39.2	24.1	21.5	2.5	12.7	79

○ 갈등 상대방

- 갈등관계에 있던 상대방을 살펴보면, ‘커뮤니티 회원’이 79.7%(63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커뮤니티 운영진’ 8.9%(7개), ‘강사’, ‘커뮤니티 지원단’, ‘캠퍼스 직원’ 각 2.5%(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45] 갈등 상대방

(n=79,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커뮤니티 회원	63	79.7
커뮤니티 운영진	7	8.9
강사	2	2.5
커뮤니티 지원단	2	2.5
캠퍼스 직원	2	2.5
기타	3	3.8
합계	79	100

○ 갈등 이후 현재 상황

- 커뮤니티 내 갈등 이후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가 45.6%(36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갈등을 초래한 회원이 탈퇴하였다’ 26.6%(21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아직까지 갈등 상황에 있다’ 16.5%(13개), ‘다른 회원의 중재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 8.9%(7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구성원 간 갈등 이후 갈등이 해결된 비율이 54.5%, 해결이 되지 못한 채 여전히 갈등 상황에 있거나 회원이 탈퇴한 비율이 43.1%로 나타남. 즉, 갈등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는 커뮤니티의 비율도 높아 커뮤니티 구성원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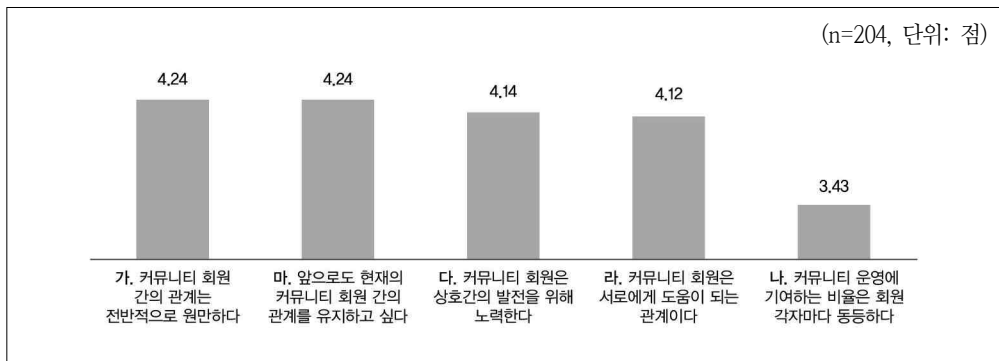
[표 III-46] 갈등 이후 현재 상황

(n=79,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해결 (54.5%)	대화와 협의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	36	45.6
	다른 회원의 중재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	7	8.9
미해결 (43.1%)	갈등을 초래한 회원이 탈퇴하였다.	21	26.6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아직까지 갈등 상황에 있다.	13	16.5
기타		2	2.5
합계		79	100

4) 커뮤니티 회원 간의 관계

- 커뮤니티 회원 간의 관계(5점 만점)를 살펴보면, ‘가. 커뮤니티 회원 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원만하다’ 및 ‘마. 앞으로도 현재의 커뮤니티 회원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가 각 4.24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다. 커뮤니티 회원은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4.1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나. 커뮤니티 운영에 기여하는 비율은 회원 각자마다 동등하다’는 3.4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Ⅲ-3] 커뮤니티 회원 간의 관계

5. 커뮤니티 운영 경비 및 지원금

1) 모임 1회 평균 지출 비용 및 경비 조달 경로

- 모임 1회 평균 지출 비용은 5.7만 원임.
- 커뮤니티 플러스 지원금을 제외한 커뮤니티 운영경비 조달 경로를 살펴보면, ‘필요 시마다 회원으로부터 각출’이 80.4%(164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회원가입 시 가입비 납부’ 8.3%(17개), ‘정기회비’ 3.9%(8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수령’,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수익사업 운영’, ‘부족하지 않게 계획대로 사용’ 각 2.5%(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Ⅲ-47] 커뮤니티 운영 경비 조달 경로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필요시마다 회원으로부터 각출	164	80.4
회원가입 시 가입비 납부	17	8.3
정기회비(월/년)	8	3.9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수령	5	2.5
커뮤니티 자체 수익사업 운영	5	2.5
부족하지 않게 지원금만큼만 운영	5	2.5
합계	204	100

- 1회 평균 지출비용은 커뮤니티 유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사회 공헌 유형은 6.8만 원으로 다른 세 가지 유형에 비해 높았고, 학습 유형의 커뮤니티의 1회 평균 모임 지출 비용은 4.6만 원으로 가장 낮았음.
- 운영경비 조달 경로에서도 커뮤니티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일 유형의 경우 ‘필요시 회원 각출’이 65.6%로 나타나 회원으로부터 각출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난 다른 유형의 커뮤니티에 비해 적었음. 이에 반해 ‘자체적 수익사업 운영’이나 ‘부족하지 않게 계획대로 사용’이 각각 9.4%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학습이나 사회 공헌 유형의 경우 ‘필요시 회원으로부터 각출’하는 비율 이외에 ‘회원 가입 시 가입비 납부’가 각각 11.3%, 9.2%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음.

[표 III-48] 모임 1회 평균 지출 비용 및 경비조달 경로(유형별)

(n=204, 단위: %, 만 원)

구 분		필요시 회원 각출	회원 가입 시 가입비 납부	정기 회비	타 기관 지원금 수령	자체적 수익 사업 운영	부족하 지 않게 계획대 로 사용	기타	사례수	1회 평균 지출 비용 (만 원)
커뮤니티 유형 (현재)	일	65.6	6.3	3.1	0.0	9.4	9.4	6.3	32	5.2
	문화	85.2	5.6	1.9	3.7	1.9	0.0	5.6	54	5.8
	학습	83.0	11.3	3.8	1.9	0.0	3.8	5.7	53	4.6
	사회 공헌	81.5	9.2	6.2	3.1	1.5	0.0	4.6	65	6.8
전 체		80.4	8.3	3.9	2.5	2.5	2.5	5.4	204	5.7

2) 지원금 사용 비율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로 지급되는 지원금의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여비나 식비, 다과비 등에 해당하는 ‘운영비’가 49.7%(101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그다음으로는 홍보 인쇄비나 단기 임차료, 물품 구입비, 교육 활동비 등에 해당하는 ‘경비’ 30.3%(62개), 강사비나 전문가 활용비 등에 해당하는 ‘인건비’ 20.0%(41개) 순으로 나타남.

[표 III -49] 커뮤니티 지원금 사용 비율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운영비	101	49.7
경비	62	30.3
인건비	41	20.0
합계	204	100

[표 III -50] 커뮤니티 지원금 예산 사용 항목

비목	세목	내역	집행기준
경비	홍보 인쇄비	현수막,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 구입 비용	물품은 원칙적으로 개인 자산으로 귀속되는 것은 구입할 수 없으나, 커뮤니티 활동 관련 필요성이 인정되고 소액일 경우 가능
	단기 임차료	단기로 필요한 모임 공간,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의 임차료	
	물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 구입 비용	
	교육 활동비	교육 시설, 박물관, 문화시설 등의 입장료	
운영비	여비, 숙박비	외부 활동에 필요한 시외 여비와 숙박비	시내 여비는 자부담, 편성 불가
	식비	사업 진행을 위한 식사 비용	1인 8천 원 이내
	다과비	사업 진행을 위한 다과 비용	1인 3천 원 이내
인건비	강사비, 전문가 활용비	강사비, 자문비, 그밖에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정 역할을 요청했을 경우에 사례로서 지급하는 수당	1인 1회 10만 원 이하(시간당 5만 원 이하, 하루 최대 10만 원), 커뮤니티 회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 불가

3)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외 기관으로부터의 금전적 지원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외 기관으로부터의 금전적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커뮤니티는 6개(2.9%)였으며, 지원 금액은 월평균 11.6만 원임.
- 커뮤니티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받는 기관은 ‘마을 공동체 등’ 3개, ‘생활문화센터’, ‘보건복지부’, ‘KDB 나눔재단’ 각 1개였음.
- 재단 이외의 타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사례는 커뮤니티 전체의 2.9%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나, 향후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으로부터의 지원금 수령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표 III -51] 커뮤니티가 지원을 받는 기관

(n=6, 단위: 개)

구 분	커뮤니티 수
마을 공동체 등	3
생활문화센터	1
보건복지부	1
KDB 나눔재단	1
계	6

4) 서울시50+지원금 정산 과정 만족도

- 서울시50+지원금 정산 과정 만족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4가지 항목 모두 중위 수인 2.5점 이상으로, 전반적인 만족도가 중간 이상임을 알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시스템 글자 크기’가 3.2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우리은행 보조금 정산 시스템 가입 절차’ (3.00점), ‘예산 항목별 비율 및 금액 계산’(2.9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증빙서류 첨부 방법(감열지 영수증)’은 2.75점으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다시 말해,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지원금 정산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과정에 불편을 느낌을 알 수 있음.

[표 III -52] 서울시50+지원금 정산 과정 만족도

구분	점수 (5점 만점)
가. 예산 항목별 비율 및 금액 계산	2.91
나. 우리은행 보조금 정산 시스템 가입 절차	3.00
다. 보조금 정산 시스템 글자 크기	3.25
라. 증빙서류 첨부 방법(감열지 영수증 등)	2.75
평균	3.0

○ 지원금 정산 과정 불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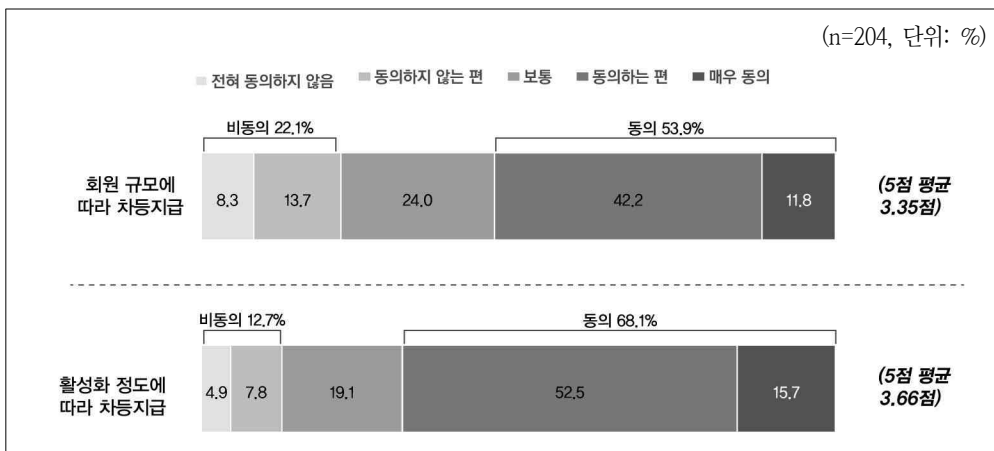
- 기타 지원금 정산 과정 불편사항으로는 ‘시스템’ 관련(44.6%), ‘예산 한도’ 관련(11.8%), ‘담당자’ 관련(1.5%) 등의 불편사항 의견이 나타남.
- 세부 내용으로는 ‘증빙서류 첨부는 비생산적임/서류 처리가 불편’(20.6%), ‘결재/정산 과정이 불편하다’(12.3%), ‘전산이 불편하다/프로그램 시스템이 불편하고 어렵다’(7.8%) 등의 의견이 있음.

[표 III -53] 지원금 정산 과정 불편사항

(단위: %)	
구 분	%
[시스템]	44.6
• 증빙서류 첨부는 비생산적임/서류 처리가 불편	20.6
• 결재/정산 과정이 불편하다	12.3
• 전산이 불편하다/프로그램 시스템이 불편하고 어렵다	7.8
• 가입 절차/계좌개설이 불편하다.	1.5
• 활동 일지를 카페에 자세히 올리는 것이 불편하다/세부적인 내용의 기록의 복잡성	1.5
• 잔고 맞추기가 어렵다	1.5
• 사용 안내문 단순하게 게시해야 한다	1.0
• 강사료 지불의 불편함	0.5
[예산 한도]	11.8
•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예산이 비율로 정해져 있다	6.4
• 예산 한도를 꼭 지켜야 하는 점/한도 내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3.9
• 교재/홍보비가 부족하다	0.5
• 예산 항목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	0.5
• 차량 운행 경비 미지원	0.5
• 인건비 사용	0.5
[담당자]	1.5
• 실행자들과 소통이 어렵다	0.5
• 담당자의 불친절 및 태도	0.5
• 사업이 끝나고 보고를 마쳤는데 오래 지난 후 질문이 오는 점	0.5
[기타]	8.8
• 꼼꼼하게 챙겨야 해서 신경이 쓰임/너무 복잡하다	4.4
• 자율성이 없다	2.0
• 현실을 직시해서 탄력적으로 운영 요망	0.5
• 인터넷 뱅킹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0.5
• 사전에 안내와 보조 설명 시간이 필요	0.5
• 이자 등 처리	0.5
• 믿지 못하는 듯함	0.5
[없음/모름]	38.2

5) 서울시50+지원금 차등 지급 동의 정도

- 회원 규모에 따라 서울시50+지원금 차등 지급 동의 정도는 5점 만점 중 3.35점이며, 활성화 정도에 따라 서울시50+지원금 차등 지급 동의 정도는 5점 만점 중 3.66점임.
- 회원 규모에 따라 서울시50+지원금 차등 지급 동의 정도는 ‘동의’가 53.9%(동의하는 편: 42.2% + 매우 동의: 11.8%)로 ‘비동의’(22.1%, 동의하지 않는 편: 13.7% + 전혀 동의하지 않음: 8.3%)보다 높게 나타남.(보통: 24.0%)
- 회원 규모에 따라 서울시50+지원금 차등 지급 동의 정도는 ‘동의’가 68.1%(동의하는 편: 52.5% + 매우 동의: 15.7%)로 ‘비동의’(12.7%, 동의하지 않는 편: 7.8% + 전혀 동의하지 않음: 4.9%)보다 높게 나타남.(보통: 19.1%)



[그림 III -4] 서울시50+지원금 차등지급 동의 정도 - 회원 규모

6. 커뮤니티 운영

1) 커뮤니티 운영 애로사항

- 커뮤니티 운영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활동 내용 개발’이 31.4%(64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커뮤니티 비전 설정’ 23.0%(47개),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인간관계’ 18.6%(38개), ‘회원 모집’ 9.3%(19개), ‘강사 섭외’ 6.4%(1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 -54] 커뮤니티 운영 상의 애로사항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활동 내용 개발	64	31.4
커뮤니티 비전 설정	47	23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인간관계	38	18.6
회원 모집	19	9.3
강사 섭외	13	6.4
기타	17	8.3
애로사항 없음	6	2.9
합계	204	100

- 커뮤니티 운영 상의 애로사항은 참여 횟수별로 다소의 차이가 발견됨.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경우, 커뮤니티 운영 상의 애로사항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커뮤니티 비전 설정’ (25.9%)이었고, 그 다음이 ‘활동 내용 개발’과 ‘회원 간 친목도모/인간관계’로 각각 24.1%를 차지하였음.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최초로 참여한 커뮤니티의 경우 커뮤니티 운영 상의 어려움으로 ‘활동 내용 개발’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이 ‘커뮤니티 비전 설정’ 22%,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인간관계’ 16.7%의 순으로 나타남.
- 즉,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경우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을 찾아내고 개발하는 것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고,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커뮤니티 활동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커뮤니티 참여 회차가 적을수록 활동 내용에, 커뮤니티 참여 회차가 많을수록 커뮤니티의 비전 설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커뮤니티 참여 회차가 많아 활동 내용이 누적되면 커뮤니티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활동 내용과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음.

[표 III -55] 커뮤니티 운영 애로사항(참여 횟수별)

(n=204, 단위: %)

구 분		활동 내용 개발	커뮤니티 비전 설정	회원 간 친목도모/ 인간관계	회원 모집	강사 섭외	기타	없음	사례수
참여 횟수	1회	34.0	22.0	16.7	7.3	8.0	8.0	4.0	150
	2회 이상	24.1	25.9	24.1	14.8	1.9	9.3	0.0	54
전 체		31.4	23.0	18.6	9.3	6.4	8.3	2.9	204

2) 커뮤니티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 커뮤니티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을 살펴보면, ‘비전 설정과 제시’가 39.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회원 간 친목도모’(29.9%), ‘다양한 활동 개발’(2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커뮤니티 대표에게 필요한 덕목에서 “투명한 예산 운용”이 1.5%로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커뮤니티 대표에 대한 구성원 간의 신뢰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활동에 소요되는 금액 전체에 비해 크지 않고, 정산 과정이 투명하여 예산 운용에 대한 관심이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표 III -56] 커뮤니티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비전 설정과 제시	81	39.7
회원 간 친목 도모	61	29.9
다양한 활동 개발	56	27.5
투명한 예산 운영	3	1.5
기타	3	1.5
합계	204	100

- 커뮤니티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커뮤니티 참여 횟수별로 구성 비의 차이가 있었음.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한 커뮤니티의 경우, 비전 설정과 제시 (40.7%)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덕목이 ‘회원 간 친목도모’ (31.3%)인데 비해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커뮤니티의 경우, ‘비전 설정과 제시’ 37%, ‘다양한 활동 개발’ 33.3% 순으로 나타나 커뮤니티의 활동기간이 길수록 다양하고 새로운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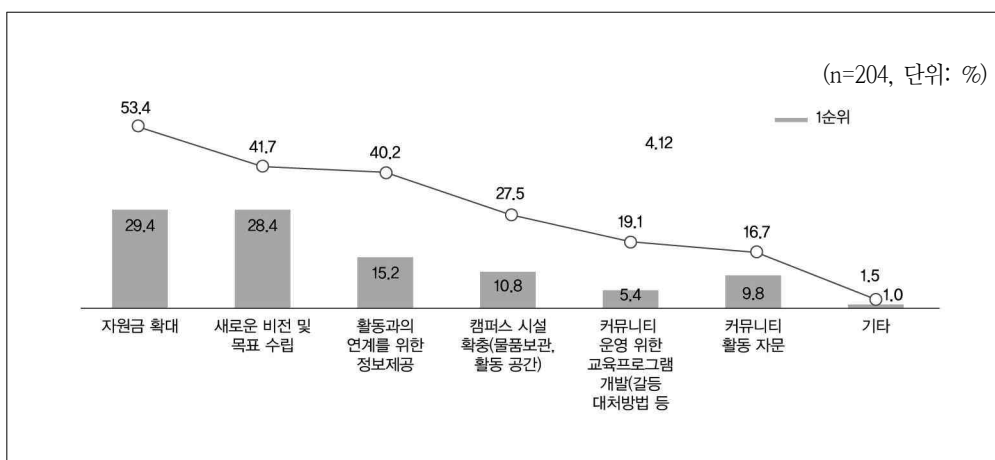
[표 III -57] 커뮤니티 대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참여 횟수별)

(n=204, 단위: %)

구 분		비전 설정과 제시	회원 간 친목도모	다양한 활동 개발	투명한 예산운용	기타	사례수
참여 횟수	1회	40.7	31.3	25.3	2.0	0.7	150
	2회 이상	37.0	25.9	33.3	0.0	3.7	54
전 체		39.7	29.9	27.5	1.5	1.5	204

3) 향후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 향후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1+2순위)로는 ‘지원금 확대’가 53.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새로운 비전 및 목표 수립’(41.7%), ‘활동과의 연계 를 위한 정보 제공’(40.2%), ‘캠퍼스 시설 확충(물품보관, 활동 공간)’ (27.5%),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19.1%), ‘커뮤니티 활동 자문’(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 -5] 향후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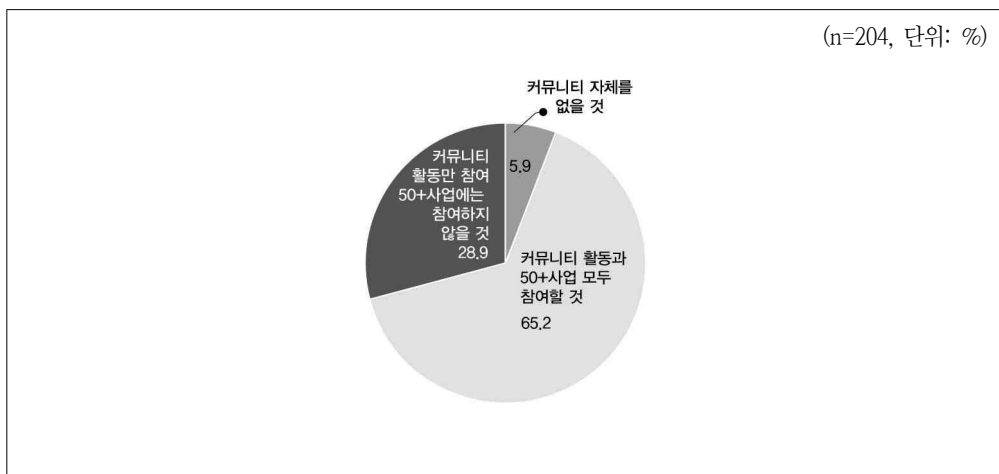
4) 내년도 커뮤니티 운영과 활동 지속 여부

- 내년도 커뮤니티 운영과 활동 지속 여부를 살펴보면,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50+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도 참여할 것이다’가 65.2%(133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 그다음으로 ‘커뮤니티 활동은 하지만, 50+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28.9%(59개), ‘커뮤니티 자체를 없앨 것이다’ 5.9%(12개) 순으로 나타남.

[표 III-58] 내년도 커뮤니티 운영과 활동 지속 여부

(n=204,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커뮤니티 활동과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모두 참여할 것	133	65.2
커뮤니티 활동은 하되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은 참여하지 않을 것	59	28.9
커뮤니티 자체를 없앨 것	12	5.9
합계	204	100



[그림 III-6] 내년도 커뮤니티 운영과 활동 지속 여부

○ 내년에도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

- 내년에도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커뮤니티를 결성했던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함’과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서’가 각 27.8%(37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커뮤니티 활동이 재미있어서’ 23.3%(31개), ‘커뮤니티에 새로운 비전이 생김’ 19.5%(26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 -59]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

(n=133,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커뮤니티를 결성했던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함	37	27.8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서	37	27.8
커뮤니티 활동이 재미있어서	31	23.3
커뮤니티에 새로운 비전이 생김	26	19.5
기타	2	1.5
합계	133	100

- 내년에도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는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의 참여 횟수나 커뮤니티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최초로 참여하는 경우, ‘커뮤니티 결성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함’이 3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커뮤니티의 경우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서’가 30.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커뮤니티에 새로운 비전이 생김’이 25.6로 그다음을 차지함.
- 내년에도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려는 이유에 있어 커뮤니티 유형별로도 다소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일 유형의 경우, ‘커뮤니티 결성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함’이 44%로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음.
- 문화 유형의 경우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서’나 ‘커뮤니티 활동이 재미있어서’가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표 III -60]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참여 횟수별, 유형별)

(n=133, 단위: %)

구 분		커뮤니티 결성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함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서	커뮤니티 활동이 재미있어서	커뮤니티에 새로운 비전이 생김	기타	사례수
참여 횟수	1회	31.9	26.6	23.4	17.0	1.1	94
	2회 이상	17.9	30.8	23.1	25.6	2.6	39
커뮤니티 유형 (현재)	일	44.0	16.0	16.0	16.0	8.0	25
	문화	13.3	36.7	36.7	13.3	0.0	30
	학습	32.1	25.0	25.0	17.9	0.0	28
	사회 공헌	26.0	30.0	18.0	26.0	0.0	50
전 체		27.8	27.8	23.3	19.5	1.5	133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비참여 이유

- 내년에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지원금 정산 관련 행정처리가 불편해서’가 47.5%(28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대해 불만족해서’ 10.2%(6개), ‘커뮤니티 지원금이 너무 소액이어서’ 및 ‘캠퍼스 관계자 및 지원단의 지나친 관여 때문에’ 각 8.5%(5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 -61]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비참여 이유

(n=59,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지원금 정산 관련 처리가 불편해서	28	47.5
커뮤니티 사업에 대해 불만족해서	6	10.2
커뮤니티 지원금이 너무 소액이어서	5	8.5
캠퍼스 관계자 및 지원단의 지나친 관여 때문	5	8.5
시간 부족	4	6.8
커뮤니티 결성 초기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3	5.1
기타	8	13.4
합계	59	100

○ 커뮤니티 해체 이유

- 내년엔 커뮤니티를 없애려는 가장 큰 이유로는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음’이 41.7%(5개)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커뮤니티 결성 초기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25.0%(3개), ‘회원 간의 불화로 인해서’ 및 ‘임원진(대표 혹은 총무)에게 다른 일이 생겨서, 각 8.3%(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I -62] 커뮤니티 해체 이유

(n=12, 단위: 개, %)

구분	커뮤니티 수	비율
회원 참여 저조로 커뮤니티 활동 지속 불가능	5	41.7
커뮤니티 결성 초기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기 때문	3	25.0
회원 간의 불화	1	8.3
임원진(대표, 총무)에게 다른 일이 생겨서	1	8.3
기타	2	16.7
합계	12	100

7. 커뮤니티 활동 이후 삶의 만족도

1) 50+커뮤니티 이후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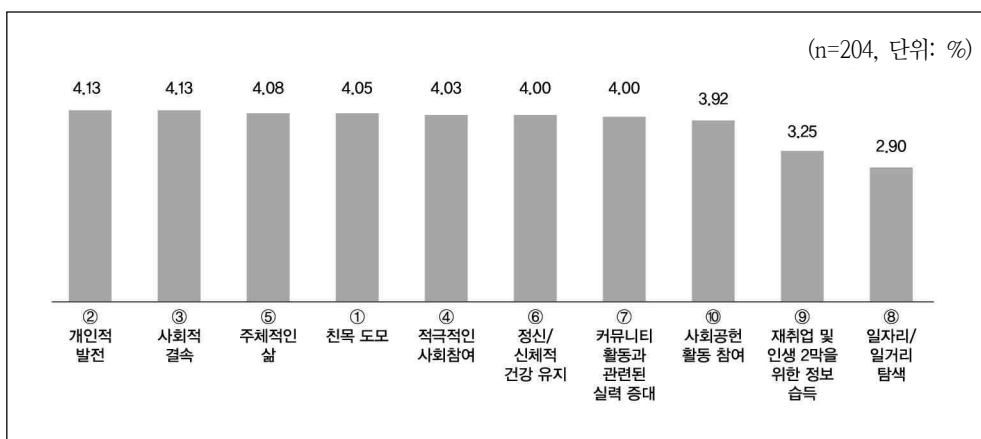
- 50+커뮤니티 이후 삶의 만족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정신건강 만족도’가 4.0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관계 만족도’ 3.98점, ‘신체 건강 만족도’ 3.7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경제적 만족도’는 3.0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I -63] 50+커뮤니티 이후 삶의 만족도

구분	점수 (5점 만점)
경제적 만족도	3.08
사회관계 만족도	3.98
신체 건강 만족도	3.79
정신건강 만족도	4.06
평균	3.7

2) 커뮤니티 활동의 의미

- 50+커뮤니티 활동의 의미 동의 정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② 개인적 발전’ 및 ‘③ 사회적 결속’이 각 4.13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⑤ 주체적인 삶’(4.08점), ‘① 친목 도모’(4.05점), ‘④ 적극적인 사회 참여’(4.0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⑧ 일자리/일거리 탐색’은 2.9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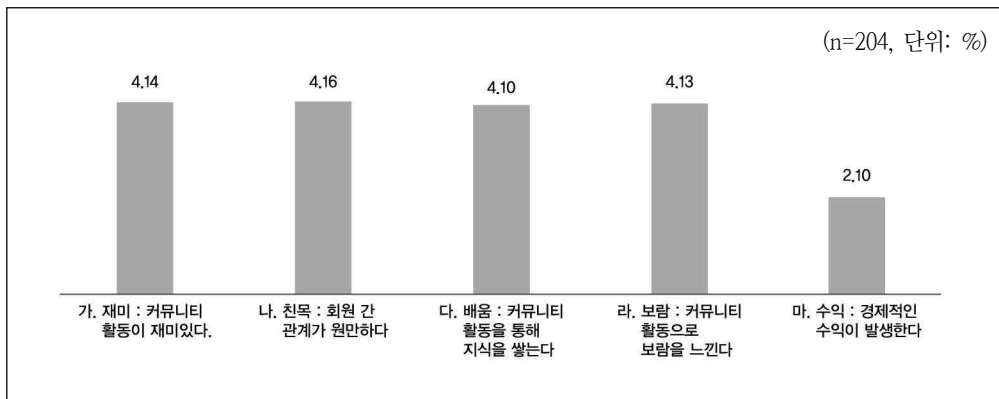


[그림 III -7] 50+커뮤니티 활동의 의미 동의 정도

제3절 50+커뮤니티 활성화의 의미와 지향점

1. 50+커뮤니티 지속과 활성화를 위한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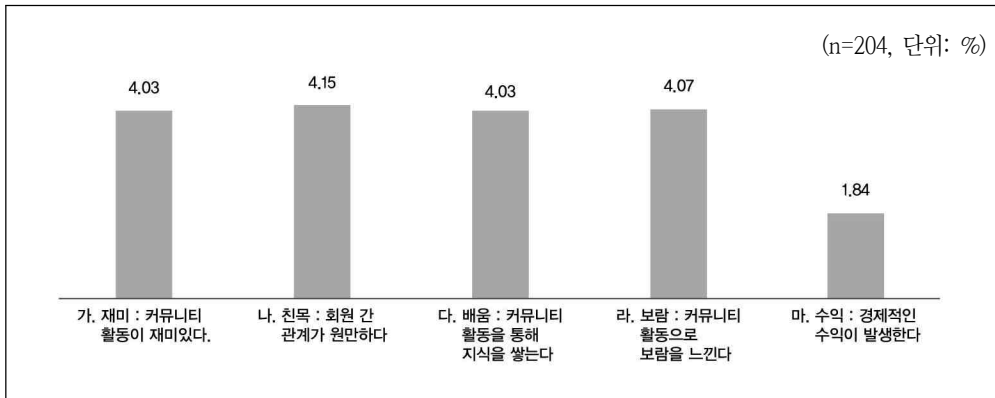
- 50+커뮤니티 지속이나 활성화 위한 필요 정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친목: 회원 간 관계가 원만하다’가 4.1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재미: 커뮤니티 활동이 재미있다’(4.14점), ‘보람: 커뮤니티 활동으로 보람을 느낀다’(4.13점), ‘배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는다’(4.1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수익: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는 2.1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III-8] 50+커뮤니티 지속과 활성화를 위한 필요 정도

○ 현 커뮤니티 운영 평가

- 현 커뮤니티 운영평가(5점 만점)를 살펴보면, ‘친목: 회원 간 관계가 원만하다’가 4.15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보람: 커뮤니티 활동으로 보람을 느낀다’(4.07점), ‘재미: 커뮤니티 활동이 재미있다’ 및 ‘배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는다’(각 4.0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수익: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한다’는 1.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Ⅲ-9] 현 커뮤니티 운영 평가

○ 필요 정도와 현재 상태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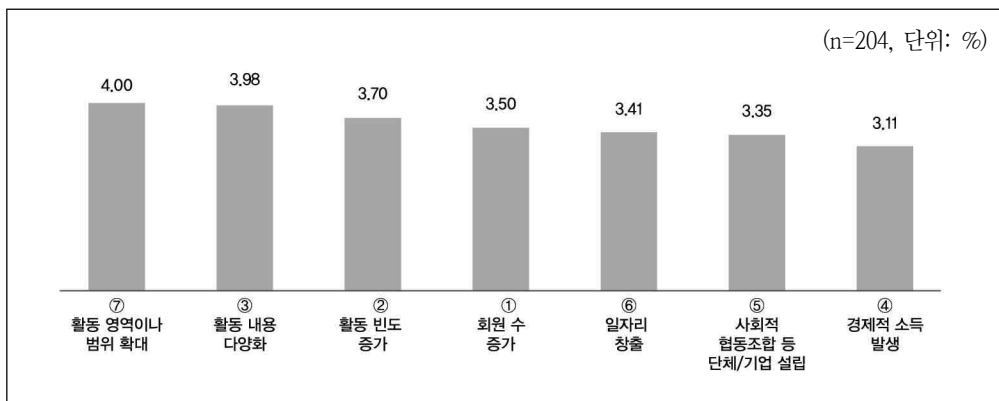
- 커뮤니티의 지속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요소에 대해 필요 정도(A)와 현재 상태(B)의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나는 요소는 ‘수익’이었음.
- 수익에 대한 필요 정도는 2.10점으로, 다른 요소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응답하였고, 이에 대한 현재 상태는 1.84점으로 필요 정도와의 차이가 0.26점이었음.
- ‘수익’ 다음으로 필요 정도와 현재 상태의 차이가 큰 요소는 ‘재미’로, 필요 정도는 4.14점이었으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는 4.03점으로, 현재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느끼는 재미의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친목’은 필요 정도와 현재 상태의 차이가 0.01로 가장 적어 비교적 만족스러운 상태임을 알 수 있음.

[표 Ⅲ-64] 커뮤니티 활성화 필요 요소와 현재 상태

	필요 정도(A)	현재 상태(B)	차이(B-A)
재미	4.14	4.03	-0.11
친목	4.16	4.15	-0.01
배움	4.10	4.03	-0.07
보람	4.13	4.07	-0.06
수익	2.10	1.84	-0.26

2. 커뮤니티 활성화 의미에 대한 항목별 동의 정도

- 커뮤니티 활성화 의미에 대한 항목별 동의 정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활동 영역이나 범위 확대’가 4.00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활동 내용 다양화’(3.98점), ‘활동 빈도 증가’(3.70점), ‘회원 수 증가’(3.50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상위 3개 영역이 모두 커뮤니티 활동의 확대와 관련되어 있었음.
- 반면, ‘경제적 소득 발생’은 3.1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III-10] 커뮤니티 활성화 의미에 대한 항목별 동의 정도

3. 50+커뮤니티 활동의 지향점

- 50+커뮤니티 활동의 지향점 항목별 동의 정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사회 공헌활동으로 연계된다’(4.10점), ‘현재 활동의 내용이나 상태를 유지하며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소속감 및 연대의 기회를 제공한다’(4.0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단체/기업 설립이나 판매 등 소득이 발생하는 일거리/일자리로 연계된다’는 3.4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III -65] 50+커뮤니티 활동의 지향점 항목별 동의 정도

구분	점수 (5점 만점)
단체/기업 설립이나 판매 등 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일거리로 연계	3.45
사회 공헌활동으로 연계	4.1
현재 활동 내용이나 상태를 유지하며 구성원에게 소속감 및 연대 기회 제공	4.4
평균	4.0

제4장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제1절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1. 커뮤니티 운영 관련

1) 지원금 정산 효율화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는 커뮤니티는 3개월 동안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며, 우리은행 보조금 정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지출하게 됨.
- 이는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으로, 서울시50플러스재단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나 여성가족재단 등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과 유사한 소규모 공동체 지원 사업 참여자는 모두 우리은행 보조금 정산 시스템에서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따라서 현재 커뮤니티 플러스 지원금의 정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그러나 본 연구조사 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활동 중인 커뮤니티 중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를 중단하고자 하는 사유 중 많은 부분이 지원금 정산 관련 행정 처리의 불편함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하면 지원금 정산의 효율화는 커뮤니티 활동에서 중요한 이슈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연령대가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에 집중되어있으므로 중·고령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고령 친화적 정산 시스템 개편이 필요함.
- 다만 정산 시스템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아닌 우리은행에서 개발·관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은행과의 협조가 필요함.
- 아울러 커뮤니티 지원단을 확대하여 커뮤니티 예산 편성 및 정산을 지원하는 업무를 별도로 편성하거나, 커뮤니티 활동 경험자와 신규 커뮤니티를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음.

2) 구성원 간 갈등해결

- 커뮤니티 대표를 비롯한 구성원 간의 갈등은 커뮤니티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
- 커뮤니티 운영 중 갈등을 경험한 커뮤니티는 79개로, 전체 응답 커뮤니티의 40%에 가까운 수치이며, 갈등의 대부분 커뮤니티 회원과의 갈등이었음.
- 또한, 갈등 이후 원만히 해결된 경우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회원이 탈퇴하거나, 아직까지 갈등 상황에 있다고 답한 경우가 거의 절반 정도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원만한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갈등의 원인은 현재 및 향후 활동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의 문제도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나타났음.
- 갈등의 주요 원인이 커뮤니티 활동 내용과 구성원의 역할 분담에 있으므로, 갈등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함.
- 커뮤니티 플러스 신청서 작성 시 혹은 커뮤니티 활동 초반에 월별(혹은 주별) 활동 세부 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개별 회원의 역할도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지원금 수혜의 형평성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기회 제한

- 커뮤니티 중 일부는 각종 단체로 성장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단체 설립 지원 사업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음.
- 그런데 본 연구조사 결과 많은 수의 커뮤니티가 50+커뮤니티 활동의 지향점 중 사회 공헌활동으로의 연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4.1), 현재 수준의 활동을 유지하며 구성원 간의 소속감이나 연대의 기회 제공을 그다음으로 꼽았음(4.04). 단체 설립이나 소득 발생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음(3.45).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커뮤니티의 성장·발전 방향이 반드시 단체 설립으로 귀결 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함.
- 따라서 커뮤니티 수준의 활동을 지속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함.
- 특히, 타 커뮤니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아울러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은 커뮤니티의 발생과 기반을 다지는 단계에서 마중물의 역할을 담당하고, 이후 개별 커뮤니티가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과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커뮤니티 활동 시 지원금 수혜 여부는 커뮤니티 활동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만큼,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이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타 기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50+커뮤니티의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지원금 차등 지급

-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 센터의 경우, 공동체 활동을 “씨앗기”와 “새싹기”로 나누어 지원 규모와 활동 기간을 달리 상정하여 공동체의 체계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본 연구조사 결과에서도, 커뮤니티 지원금의 차등 지급에 대한 동의 정도가 5점 만점 중 3.5점으로, 지원금 차등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커뮤니티의 활성화 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에 대한 동의 정도가 3.66점으로 커뮤니티 회원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3.35)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즉, 커뮤니티 회원 규모와 상관없이 활동이 활성화 되어있는 커뮤니티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음.
- 다만 향후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중 1순위가 “지원금 확대” 일 만큼 커뮤니티 활동에서 지원금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차등지급의 기준과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커뮤니티 활동 관련

1) 활동 비전 수립 및 활동 내용 자문 활성화

- 본 연구조사 결과 많은 커뮤니티들이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 및 활동처 개발, 커뮤니티 비전 설정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동시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음.
- 커뮤니티 지원단 및 담당 PM과의 면담에서도 동일한 지적이 있었는데, 커뮤니티에게 새로운 활동 목표가 생기면(예시. 플리마켓 참여, 공연 무대 참가 등)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어 성장하게 됨.
- 그러나 활동 목표를 달성한 이후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커뮤니티가 와해되거나 활동이 중단될 우려도 있음.
- 본 연구조사에서 커뮤니티 참여 횟수가 1회 차인 경우에는 활동 내용 개발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반면, 2회 차 이상인 경우 커뮤니티의 비전 설정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커뮤니티의 활동 기간에 따라 다양한 활동 내용을 개발하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보 교류와 자문이 필요함.

2) 타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및 교류 기회 제공

- 앞서 제시한 커뮤니티 활동 내용 개발과 확대를 위해서는 타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와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또한 커뮤니티 간 연계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임.
- 현재 캠퍼스별로 사례 공유회나 네트워크 등 커뮤니티 간의 교류를 도모하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캠퍼스 간, 캠퍼스와 센터 간 교류로 확대하여 더 많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구축되어있는 온라인 플랫폼인 50+포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별 커뮤니티에 대한 소개와 활동 내용 공유, 커뮤니티 상호 간의 교류 등이 온라인 환경에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추가한다면 커뮤니티 행사가 이루어지는 특정 시기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교류가 가능해질 것임.

제2절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과제

1. 단기 운영 과제

1) 커뮤니티 중복 선정 문제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시50플러스재단 3개 캠퍼스에서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커뮤니티의 참가 신청서를 분석해본 결과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 또한, 담당 PM과 커뮤니티 지원단 인터뷰 결과 동일한 커뮤니티가 두 개 이상의 캠퍼스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었음.
- 현재는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동일한 커뮤니티가 여러 개의 캠퍼스에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실정임.
- 그러나 향후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이 확대되었을 경우 이러한 사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 횟수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는 각 캠퍼스별로 신청서를 따로 접수하기 때문에 동일한 커뮤니티가 각 캠퍼스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2) 캠퍼스와 센터 간 교류 활성화

-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범위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캠퍼스였으나 실제로 커뮤니티가 활동을 하는 장소로 50+센터도 다수 거론되었음.
- 50+센터나 다른 기관에서 이미 활동하던 커뮤니티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 캠퍼스의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등록만 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혹은 캠퍼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커뮤니티를 결성하고,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했으나 캠퍼스의 지리적 요건으로 인하여 활동이 용이한 집 주변의 50+센터나 다

른 기관으로 주요 활동지를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음.

- 이러한 활동지의 다양성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즉,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의 목적이 50+세대의 연대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다면 커뮤니티가 어느 캠퍼스에서 지원금을 수령하고 다시 다른 기관에 가서 활동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그러나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의 목적이 캠퍼스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조에 있다면 특정 캠퍼스의 지원을 받은 커뮤니티는 그 캠퍼스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을 지속하여 해당 캠퍼스의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임.
- 아울러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의 목적을 차치하고라도 이미 50+커뮤니티는 다양한 기관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향후에는 캠퍼스의 구분을 없애고, 캠퍼스와 캠퍼스 간, 캠퍼스와 센터 간 커뮤니티의 연계와 교류의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임.

3) 50+당사자의 자원 예약 시스템 접근성 개선

- 커뮤니티 대표들이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의 이점으로 꼽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공간 제공”이었음.
- 여러 명의 인원이 모여 목적하는 활동을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적합한 공간과 장비 등 각종 인프라가 필수적임. 특히, 합창이나 목공, 요리, 공연, 체육활동, 연주 등 특정 목적에 맞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활동의 경우 캠퍼스에서 개설되는 수업과 커뮤니티의 활동이 겹쳐 원활한 공간 사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더구나 커뮤니티 회원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 접근이 어려워 공간 사용 예약은 각 커뮤니티에서 엑셀 (excel) 시트에 적어서 제출하고, 수합된 예약 내역을 담당 PM이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커뮤니티의 자원 예약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 중장기 운영 과제

1) 50+커뮤니티의 개념 정립과 비전 설정

- 현재까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을 통해 3년간 약 500여 개의 커뮤니티가 생성되었고, 260여 개의 커뮤니티가 활동을 중단하는 등 활발한 발생과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대한 50+세대의 많은 관심과 열정,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의 오류를 동시에 반영하는 수치임.
- 그러나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상당수의 커뮤니티가 소모임을 유지해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서의 이탈이 반드시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며, 오히려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을 통해 50+세대 간 연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50+커뮤니티의 활동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많은 수의 커뮤니티가 새롭게 생겨나고 활동 중단을 반복하는 것은 아직까지 50+커뮤니티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발전 방안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는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했던 커뮤니티들이 각종 교육이나 포럼,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커뮤니티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커뮤니티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50+세대 커뮤니티 활동은 커뮤니티 회원끼리의 개별 활동에만 그치지 않고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캠퍼스와의 점점 확대 및 협력 강화, 타 기관 및 지역으로의 확장 등 활동의 내용과 무대를 점차 넓혀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활동과 시도 자체를 50+세대의 신문화가 형성과 주도로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은 50+세대 포레 집단의 소모임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으로, 특히 최근 국가적·사회적 정책 이슈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50+세대가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은 커뮤니티의 구성과 성장을 지원하고 견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커뮤니티 지원단, 멘토단 등 풍부한 자원을 기반으로 활동 내용과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50+세대만의 독자적인 신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해가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50+커뮤니티의 개념과 장기적 비전을 성급히 제시하기보다는, 50+커뮤니티 활동이 자연적으로 누적되고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2) 50+세대가 주축이 되는 소규모 공동체 확대

- 50+커뮤니티는 마을 공동체와 같이 풀뿌리 지역공동체 조직과 주민들 간의 연대를 통한 참여형 민주주의 체제의 하나로 발전할 수 있음.
- 마을 공동체를 통해 구성원 사이에 형성된 관계와 신뢰는 지역사회에 적합한 사회정의와 복지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학술단체협의회, 2011), 이러한 소규모 공동체의 확산을 통해 사회적 관계망과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구축됨.
- 이러한 맥락에서 50+커뮤니티 역시 사회정의와 복지문화 창출 및 사회적 자본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현재 50+커뮤니티의 활동은 주로 포레집단 내에서의 교류와 학습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커뮤니티의 활동 주제는 연령과 계층, 성별에 제한이 없으므로 확장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50+커뮤니티의 참여 대상과 활동 내용을 확대하여 향후 지역공동체 확산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제3절 한계 및 제언

- 50+커뮤니티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캠퍼스뿐만 아니라 5개 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범위를 3개 캠퍼스에서 선정된 커뮤니티로 한정하였고, 조사 대상이 커뮤니티 회원 전체가 아닌 대표만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음.
- 또한, 50+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이 개설되어 운영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아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50+커뮤니티의 성장 과정과 경로를 추적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진행된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했던 역대 커뮤니티의 모든 데이터를 망라하여 결성과 활동 중단 현황, 운영상의 특성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커뮤니티 활동이 50+세대에게 갖는 의미를 최초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 결과는 향후 50+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본 연구에서 구조화를 시도하여 조사에 활용한 설문 문항을 토대로 매년 커뮤니티 운영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축적한다면 50+커뮤니티의 성장 경로를 분석하고, 50+세대의 사회적 자본 형성 과정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후속 연구를 통해 커뮤니티 지원금의 차등 지급을 위한 활성화 기준이 수립되고, 50+캠퍼스 및 센터 간 연계방안이 구축된다면 신중년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해가는 50+커뮤니티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임.

부록. 설문지

서울시50플러스 커뮤니티 현황과 활성화 방안

안녕하십니까?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만 50~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매년 50+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50플러스 재단은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의 지원을 받은 경험 있는 커뮤니티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향후 50플러스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해 주신 세부 조사 결과는 통계 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커뮤니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북지타운 3층
연락처: 02-460-5036
연구책임: 이서연PM(02-460-5036)

조사대행: 입소스 사회여론조사본부

담당연구원: 강동구 책임

실사연구원: 김희정 과장

주소: 서울시 중구 청파로 463 한국경제신문사 빌딩

연락처: (전화) 02-6464-5234,

(팩스) 02-6464-5200

조사원 기입란			
응답자 이름		응답자 전화번호	
응답자 주소	_____시(군) _____구 _____동(읍/면)		
조사일시	2018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부터 _____시 _____분까지		
조사원 이름		조사일시	2018년 _____월 _____일

■ 응답 시 유의사항 ■

※ 본 조사는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합니다.

※ 귀 커뮤니티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대표자 또는 운영자님(부대표, 총무 등)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대표자 또는 운영자 역할을 사임하신 분도 해당이 됩니다)

※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설문지의 응답 기준은 귀 커뮤니티 또는 커뮤니티의 구성원 기준입니다.

※ 각 문항별로 제공되는 「응답 지침」이 있는 경우 지침에 따라 조사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진행이나 응답 기준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또는 입소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50플러스 커뮤니티 기본 정보

※ 다음은 서울시 50플러스 커뮤니티 기본현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응답 시, 사업 신청서의 주요 내용이 자동으로 보이며, 수정이나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입력해주세요.

서울시50플러스 캠퍼스 커뮤니티 기본현황			
커뮤니티 ID		커뮤니티 명	
결성 시점(년)			
결성 당시 회원 수			
총 참여(선정) 횟수	※ 커뮤니티 사업 참여는 매년도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5회까지 신청 가능: 2016년 2회, 2017년 2회, 2018년 1회)		
세부 회차별 참여 현황			
참여 회차	참여 연도	캠퍼스명	해당 캠퍼스에서 등록한 사유 (간략히 적어주세요)
1회(최초 참여)	① 2016년 ② 2017년 ③ 2018년	① 서부 ② 중부 ③ 남부	
2회	① 2016년 ② 2017년 ③ 2018년	① 서부 ② 중부 ③ 남부	
3회	① 2016년 ② 2017년 ③ 2018년	① 서부 ② 중부 ③ 남부	
4회	① 2016년 ② 2017년 ③ 2018년	① 서부 ② 중부 ③ 남부	
5회	① 2016년 ② 2017년 ③ 2018년	① 서부 ② 중부 ③ 남부	

II. 커뮤니티 지속과 소멸

※ 문 1)은 총 참여 횟수가 1회 이상이고, 2018년도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문 1) 귀 커뮤니티가 2018년 서울시50플러스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모임 활동(커뮤니티) 자체가 소멸했다 → 문 1-1)로 이동
- ② 서울시50+커뮤니티 참여는 중단했으나(지원금 받지 않음), 모임 활동은 지속하고 있다 → 문 1-3)으로 이동

문 1-1) (문 1의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 커뮤니티가 더 이상 모임 활동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커뮤니티 결성 초기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기 때문
- ②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음
- ③ 회원 간의 불화로 인해서
- ④ 회비 등의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 ⑤ 임원진(대표 혹은 총무)에게 다른 일이 생겨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2) (문 1의 ①번 응답자만) 귀 커뮤니티가 소멸한 시기는 커뮤니티 결성 이후 언제쯤이었습니까?

결성 후

개월

☞ 문 1-1, 문 1-2) 응답 후 조사 종료

문 1-3) (문 1의 ②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 커뮤니티가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 참여를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커뮤니티 결성 초기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 ② 커뮤니티 지원금이 너무 소액이어서
- ③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대해 불만족해서(지원금, 공간, 기타)
- ④ 지원금 정산 관련 행정처리가 불편해서
- ⑤ 캠퍼스 관계자 및 지원단의 지나친 관여 때문에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문 2)는 총 참여 횟수가 1회 이상이고, 2018년도에 참여하고 있는 커뮤니티만 해당

※ 다음은 귀 커뮤니티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문 2) 귀 커뮤니티가 커뮤니티의 운영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겪었던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면 모두 서술해주시시오.

(주요 변화와 내용, 시기 등은 커뮤니티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답변이 있는 것이 아니며, 귀 커뮤니티의 경험을 상세히 들려주세요.)

구분	주요 변화 1	주요 변화 2	주요 변화 3	주요 변화 4	추가 가능
1) 주요 변화					
2) 내용					
3) 시기					
4) 변화 이후의 활동					

[응답 예시] 문화예술 커뮤니티

구분	주요 변화 1	주요 변화 2	주요 변화 3	주요 변화 4
1) 주요 변화	친목(공동체 의식) 강화	모두의 축제 공연	마포구 공모사업 참여	도심권 50+센터 커뮤니티 지원 사업
2) 시기	커뮤니티 결성 직후	커뮤니티 결성 후 6개월	커뮤니티 결성 후 1년	커뮤니티 결성 후 2년
3) 내용	모임의 주기와 내용을 확정 짓고, 정기적인 활동이 시작됨	연습한 연극을 50+ 캠퍼스 모두의 축제에서 선보임	마포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연을 올림	도심권 50+ 센터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극 2~3편 공연
4) 변화 이후의 활동	커뮤니티 구성원 간 친목이 두터워지고, 공동체라는 의식이 강해짐. 연극의 기초를 배움.	공연을 위해 모인 집단인데 공연이라는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에 커뮤니티 활동이 주춤해짐.	지원금을 받아 1회 공연을 함.	50+ 캠퍼스보다 더 큰 금액인 300만 원을 지원받는 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선정되어 우리의 이야기가 담긴 창작극을 직접 만들고, 1년 동안 그 연극으로 2~3번 무대에 오르게 됨.

Ⅲ. 커뮤니티 구성원

※ 다음은 커뮤니티의 회원 현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인원 현황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응답해주시요.

문 3) 현재 귀 커뮤니티의 전체 회원은 총 몇 명입니까? 총 명

문 3-1) 귀 커뮤니티의 전체 회원 중 주 활동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 주 활동 인원: 모임 활동에 50% 이상 참여하는 인원을 의미)

총 명

문 4) 현재 귀 커뮤니티 회원의 성별 비율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주세요

남	여	합계
()%	()%	100%

문 5) 현재 귀 커뮤니티 회원의 연령대별 비율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주세요

40대 이하	50대 초반 (50~54세)	50대 후반 (55~59세)	60대 초반 (60~64세)	60대 후반 이상 (만 65세 이상)	합계
()%	()%	()%	()%	()%	100%

문 6) 현재 귀 커뮤니티 회원의 경제적 수준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주세요

하	중하	중중	중상	상	합계
()%	()%	()%	()%	()%	100%

문 7) 현재 귀 커뮤니티 회원의 최종학력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주세요

대졸 이하	대학원 이상	합계
()%	()%	100%

문 8) 현재 귀 커뮤니티 회원의 거주 지역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합이 100%가 되도록 응답해주세요

서울	수도권(경기, 인천)	그 외 지역	합계
()%	()%	()%	100%

IV. 커뮤니티 활동 및 운영

가. 결성 계기

문 9) 귀 커뮤니티의 결성 계기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50+캠퍼스 이용자 ② 50+센터에서 활동하던 커뮤니티
- ③ 50+재단과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활동해오던 동호회

문 9-1) (문 9의 ①번 응답자만)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로 커뮤니티를 결정하였나요?

- ① 교육과정 수업을 통한 커뮤니티 결정
- ② 보람일자리 사업 참여를 계기로 커뮤니티 결성
- ③ 커뮤니티 지원단(컨설턴트, 모더레이터 등)의 권유 등을 통해 결성
- ④ 캠퍼스 담당 PM의 권유/추천 등을 통해 커뮤니티 결성
- ⑤ 지인의 추천 등으로
- ⑥ 구성원 간 협의와 요청 등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10) 귀 커뮤니티가 서울시 50플러스 커뮤니티 플러스 지원 사업에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지원금이 있어서 ② 공간이 지원돼서
③ 50플러스 타 커뮤니티들과의 교류가 원활해서 ④ 회원 모집이 용이해서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나. 활동 빈도

문 11) 귀 커뮤니티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오프라인 상의 모임(온라인 모임은 제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문 11)으로 이동

문 11-1) 귀 커뮤니티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정기적인 모임(오프라인 상의 모임) 주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주간 ② 격주간 ③ 월간 ④ 부정기적으로 모임

문 11-2) 귀 커뮤니티는 2018년 1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몇 회 정도 모임을 갖고 계십니까? 주간으로 모임을 갖는 경우 월간으로 전환하여 응답해주시시오.

월평균 회

문 12) 귀하는 커뮤니티 활동에 있어 타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나,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가. 타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	①	②	③	④	⑤
나. 타 커뮤니티와의 교류	①	②	③	④	⑤

문 13) 귀 커뮤니티는 현재 타 커뮤니티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 문 13-1)로 이동 ② 아니다

문 13-1) (문13의 ①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어떤 커뮤니티와 현재 교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서울시50플러스 내의 타 커뮤니티와 교류 중이다
- ② 서울시50플러스와 관계없는 타 커뮤니티와 교류 중이다
- ③ 서울시50플러스 내의 타 커뮤니티 및 서울시50플러스와 관계없는 타 커뮤니티 모두와 교류 중이다

문 14) 귀 커뮤니티는 현재 타 커뮤니티와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교류를 원하십니까?

① 그렇다(이유;) ② 아니다(이유;)

문 15) 귀 커뮤니티에 등록된 구성원 중 타 커뮤니티에서도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다. 활동 지역 및 내용

문 16) 귀 커뮤니티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중복응답 가능)(등록 캠퍼스와 다를 수 있음)

- ① 서부캠퍼스 ② 중부캠퍼스 ③ 남부캠퍼스
- ④ 도심권 50+센터 ⑤ 동작 50+센터 ⑥ 영등포 50+센터
- ⑦ 노원 50+센터 ⑧ 서대문 50+센터 ⑨ 기타

문 16-1) 귀 커뮤니티의 주된 활동 장소는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시: 서울시50+중부캠퍼스 1층 모임방, 인근 카페 등)

--

문 17) 귀 커뮤니티는 커뮤니티의 활동 내용이나 활동처를 어떻게 탐색하십니까?

- ① 활동 내용이나 활동처를 별도로 찾지 않는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내에서만 활동)
- ② 담당 PM의 권유나 제안
- ③ 커뮤니티 지원단의 권유나 제안
- ④ 커뮤니티 대표가 탐색
- ⑤ 커뮤니티 회원이 탐색
- ⑥ 기타

문 18) 귀 커뮤니티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기술해주세요.

(예시: 주 1회 책 읽고 토론하기)

문 19) 귀 커뮤니티가 설정해둔 목표는 무엇입니까?

1) 당해 연도	2) 2~3년 후

[응답 예시]

1) 당해 연도	2) 2~3년 후
책 10권 읽기	잘 모르겠음
회원 각자 동물 인형 2개 만들어보기	플리마켓, 각종 지역 축제 장터에서 판매하여 소득 창출

문 20) 귀 커뮤니티는 지역구(자치구 혹은 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정책에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시: 종로구 노래자랑, 행운동 주민센터 강좌 개설 등)

- 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
- ② 없다

문 21) 귀 커뮤니티의 결성 초기의 커뮤니티 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까웠습니까?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일 ② 문화 ③ 학습 ④ 사회 공헌

문 22) 그렇다면, 현재의 커뮤니티 유형은 결성 초기와 비교하여 동일합니까? 아니면 변경
이 되었습니까?

- ① 동일하다 → 문 23)으로 이동 ② 변경되었다 → 문 22-1)로 이동

문 22-1) (문 22의 ②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 커뮤니티의 현재 유형은 어떻게 변
경되었나요?

- ① 일 ② 문화 ③ 학습 ④ 사회 공헌

문 22-2) (문 22의 ②번 응답자만) 그렇다면, 귀 커뮤니티의 현재 유형이 결성초기와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라. 회원관리

문 23) 귀 커뮤니티는 현재 신규 회원의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 24)로 이동
② 현재는 받고 있지 않지만, 향후 신규 회원가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 문 23-1)로
이동
③ 신규 회원은 받지 않는다 → 문 23-2)로 이동

문 23-1) (문 23의 ②번 응답자만) 귀 커뮤니티가 향후 신규 회원가입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커뮤니티 활동의 확대
② 경제적 지원(회원가입비) 필요
③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23-2) (문 23의 ③번 응답자만) 귀 커뮤니티가 신규 회원을 받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커뮤니티 목적상 기 가입 회원 간의 협력이 중요해서
- ② 신규 회원을 받는 경우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간 학습/기술 등의 수준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 ③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문 24) 귀 커뮤니티는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커뮤니티의 목적과 관련된 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친목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 25) 귀 커뮤니티는 결성 이후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하여 구성원과 갈등 상황을 겪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 25-1)로 이동
- ② 없다 → 문 26)으로 이동

문 25-1) (문 25의 ①번 응답자만)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①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의 문제
- ② 현재 활동 내용 및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 ③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의견 차이
- ④ 지원금 사용의 문제
- ⑤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25-2) (문 2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와 갈등관계에 있었던(있는) 상대방은 누구였는지요?

- ① 커뮤니티 운영진
- ② 커뮤니티 회원
- ③ 강사
- ④ 커뮤니티 지원단
- ⑤ 캠퍼스 직원
- ⑥ 기타(구체적으로)_____

문 25-3) (문 25의 ①번 응답자만) 귀 커뮤니티 내의 갈등 이후 현재 상황은 어떠한가요?

- ①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 아직까지 갈등 상황에 있다.
- ② 갈등을 초래한 회원이 탈퇴하였다.
- ③ 대화와 협의를 통해 오해를 풀었다.
- ④ 다른 회원의 중재를 통해 갈등이 해결되었다.
- ⑤ 기타 (구체적으로;_____)

문 26) 귀 커뮤니티의 회원 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커뮤니티 회원 간의 관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가. 커뮤니티 회원 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원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 커뮤니티 운영에 기여하는 비율은 회원 각자마다 동등하다	①	②	③	④	⑤
다. 커뮤니티 회원은 상호 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라. 커뮤니티 회원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이다	①	②	③	④	⑤
마. 앞으로도 현재의 커뮤니티 회원 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마. 경비 및 지원금

문 27) 귀 커뮤니티는 1회 오프라인 모임에 평균 얼마 정도의 비용이 지출되나요? 대략적으로 적어주세요

1회 평균 만원

문 28) 귀 커뮤니티는 서울시50플러스 커뮤니티 플러스 지원금(500,000원)을 제외한 커뮤니티 운영경비를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수령 ② 필요 시마다 회원으로부터 각출
 ③ 회원가입 시 가입비 납부 ④ 커뮤니티 자체적으로 수익사업 운영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문 29) 귀 커뮤니티는 커뮤니티 운영 경비를 주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대략적인 사용 비율을 %로 응답해주세요. 합계가 100%가 되도록 응답해주세요.

항목	비율
가. 경비 (홍보, 인쇄비, 회의실 임대료, 물품 구입비, 교육활동비 등)	()%
나. 운영비 (식비, 다과비 등)	()%
다. 인건비(강사비, 전문가 활동비)	()%
합계	100%

문 30) 귀 커뮤니티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 문 30-1)로 이동

문 30-1) 귀 커뮤니티가 지원을 받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문 30-2) 지원 금액의 규모는 월평균 몇 만 원 정도입니까?

월평균 만원

문 31)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는 서울시 50플러스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지원금 정산 과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가. 예산 항목별 비율 및 금액 계산	①	②	③	④	⑤
나. 우리은행 보조금 정산 시스템 가입 절차	①	②	③	④	⑤
다. 보조금 정산 시스템 글자 크기	①	②	③	④	⑤
라. 증빙서류 첨부 방법(감열지 영수증)	①	②	③	④	⑤

문 28-1) 위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 중 정산 과정에 대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문 32) 서울시 50플러스 커뮤니티 자원 사업금(500,000원)을 커뮤니티 회원 규모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 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는 편	보통	동의하는 편	매우 동의
가. 회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	①	②	③	④	⑤
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	①	②	③	④	⑤

바. 커뮤니티 운영

문 33) 귀하가 느끼시는 커뮤니티의 운영상 가장 큰 어려운 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① 활동 내용 개발 ② 커뮤니티 비전 설정 ③ 회원 간 친목 도모 및 인간관계
④ 회원 모집 ⑤ 강사 섭외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

문 34) 귀하는 커뮤니티 대표에게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비전 설정과 제시 ② 다양한 활동 개발
③ 투명한 예산 운용 ④ 회원 간 친목 도모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문 35) 귀하는 향후 커뮤니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개를 선택해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커뮤니티 활동 자문 ② 새로운 비전 및 목표 수립
③ 지원금 확대 ④ 캠퍼스 시설 확충(물품보관, 활동 공간)
⑤ 활동과의 연계를 위한 정보제공
⑥ 커뮤니티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갈등 대처 방법 등)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문 36) 귀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커뮤니티 플러스 지원 사업 참여가 여타의 동호회나 소모임 활동과 비교했을 때 갖는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활동 지원금을 준다.
②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된다.
③ 또래들끼리 모일 수 있다.
④ 캠퍼스 강자 수강생이나 사업 참여자 등 구성원을 찾기 쉽다.
⑤ 지원단이나 담당 PM 등 도움을 제공해주는 사람이 있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문 37) 다음은 일반적인 50+커뮤니티의 지속이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세부 내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가. 재미: 커뮤니티 활동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 친목: 회원 간 관계가 원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다. 배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는다.	①	②	③	④	⑤
라. 보람: 커뮤니티 활동으로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마. 수익: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바. 기타 (직접 서술: _____)	①	②	③	④	⑤

문 37-1) 그렇다면, 다음의 요소와 관련하여 귀 커뮤니티의 운영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내용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가. 재미: 커뮤니티 활동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나. 친목: 회원 간 관계가 원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다. 배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는다.	①	②	③	④	⑤
라. 보람: 커뮤니티 활동으로 보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마. 수익: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바. 기타 (직접 서술: _____)	①	②	③	④	⑤

문 38) 귀하는 내년에도 귀 커뮤니티의 운영과 활동을 지속하실 생각이십니까?

- ①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50+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도 참여할 것이다 → 문 38-1)로 이동
- ② 커뮤니티 활동은 하지만, 50+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 문 38-2)로 이동
- ③ 커뮤니티 자체를 없앨 것이다 → 문 38-3)으로 이동

문 38-1) (문 38의 ①번 응답자만) 내년에도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커뮤니티를 결성했던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함
- ② 커뮤니티에게 새로운 비전이 생김
- ③ 커뮤니티 활동이 재미있어서
- ④ 커뮤니티 구성원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어서
-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문 38-2) (문 38의 ②번 응답자만) 내년에 50+커뮤니티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커뮤니티 결성 초기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기 때문에
- ② 커뮤니티 지원금이 너무 소액이어서
- ③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대해 불만족해서(지원금, 공간, 기타)
- ④ 지원금 정산 관련 행정처리가 불편해서
- ⑤ 캠퍼스 관계자 및 지원단의 지나친 관여 때문에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문 38-3) (문 38의 ③번 응답자만) 내년에 커뮤니티를 없애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커뮤니티 결성 초기의 목표를 모두 달성했기 때문
- ② 회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커뮤니티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음
- ③ 회원 간의 불화로 인해서
- ④ 회비 등의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서
- ⑤ 임원진(대표 혹은 총무)에게 다른 일이 생겨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_____)

사. 커뮤니티 활동 이후 삶의 만족도

문 39) 50+ 커뮤니티 활동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커뮤니티 이후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커뮤니티 이후 삶의 만족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변화 없다	만족	매우 만족
가. 경제적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나. 사회관계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다. 신체 건강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라. 정신건강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문 40) 다음은 50+커뮤니티 활동의 의미를 묻는 질문입니다.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 다음의 각 항목별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커뮤니티 활동의 의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친목 도모	①	②	③	④	⑤
② 개인적 발전	①	②	③	④	⑤
③ 사회적 결속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	①	②	③	④	⑤
④ 적극적인 사회참여	①	②	③	④	⑤
⑤ 주체적인 삶 (자기 결정력 향상, 자기 주도)	①	②	③	④	⑤
⑥ 정신/신체적 건강 유지	①	②	③	④	⑤
⑦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된 실력 증대	①	②	③	④	⑤
⑧ 일자리/일거리 탐색	①	②	③	④	⑤
⑨ 재취업 및 인생 2막을 위한 정보 습득	①	②	③	④	⑤
⑩ 사회 공헌활동 참여	①	②	③	④	⑤

V. 50+커뮤니티 활성화의 의미와 지향점

문 41)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커뮤니티 활성화”의 의미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커뮤니티 활성화	매우 비동의	비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① 회원 수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② 활동 빈도 증가	①	②	③	④	⑤
③ 활동 내용 다양화	①	②	③	④	⑤
④ 경제적 소득 발생	①	②	③	④	⑤
⑤ 사회적 협동조합 등 단체/기업 설립	①	②	③	④	⑤
⑥ 일자리 창출	①	②	③	④	⑤
⑦ 활동 영역이나 범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⑧ 기타(구체적으로 서술: ____)	①	②	③	④	⑤

문 42) 귀하는 50+커뮤니티 활동의 지향점으로 다음의 항목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커뮤니티 활성화	매우 비동의	비동의	보통	동의	매우 동의
① 단체/기업 설립이나 판매 등 소득이 발생하는 일거리/일자리로 연계된다.	①	②	③	④	⑤
② 사회 공헌활동으로 연계된다.	①	②	③	④	⑤
③ 현재 활동의 내용이나 상태를 유지하며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소속감 및 연대의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④ 기타(구체적으로 서술: ____)	①	②	③	④	⑤

※ 마지막으로 귀하의 연락처 정보를 여쭙겠습니다. 응답하신 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보호
되며, 답례품 발송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답례품으로 응답하신 모든 분께
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SMS로 발송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핸드폰 번호: _____ - _____ - _____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고문헌

- 강선미, 김승인,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014, 14(2):201-211
- 강소량, 이은정, 신우진, 최은영, 임승연, 「서울시 50+세대 실태 및 수요조사 연구」,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
- 김동배,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화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2008, 60(1):211-231.
- 김미혜, 신경림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05, 25:35-52.
- 김상미, 「지방의회의 사회자본 평가: 안산시의회 관련 행위자간 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2005.
- 김용학, 「사회연결망 이론」. 서울: 박영사, 2004.
- 김종숙,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3-104, 1987.
- 김효심,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정도, 사회적 지원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정기, 「노인의 여가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정기, 노영학, 「베이비부머의 주거선호를 고려한 주거정책방향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2012, 30(2):187-214
- 박희봉, 「사회자본과 지방정부 경쟁력」, In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2001, November, (pp. 99-118).
- 송양민, ‘베이비붐세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21 세기 복스’, 2010.
- 신화경, 김영주, 이수진, 조인숙, 「아파트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11, 29(1):83-93.
- 안현찬, 구아영,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2017.
- 오병철, 한정란, 김은영, 「베이비부머 남성의 퇴직태도와 노후준비도가 노년기 사회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016, 71(4):33-51.

- 이선정, 「퇴직한 남자노인의 생활활동 유형과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숙중, 김희경, 최준규,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2008, 42(1), 149-170.
- 이희태,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전략」 지방정부연구, 2012, 16(3), 69-89.
- 장춘명, 중고령자의 재무적 요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정경희, 오영희, 이운경, 손창균, 박보미, 이수연, 이용식,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정경희, 이소정, 이운경, 김수봉, 선우덕, 오영희, 이은진, 「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 통계청, 「서울시 주민등록인구(연령별/구별) 통계」, 2018.
- 한정란, 박성희, 원영희, 최일선, 「노인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2008.
- 함창모, 남운명,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18, 8(2), 27-58.
- 홍성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antisocial’ 측면에 대한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2, 19(2), 125-146.
- Alexandra M. Curley, “Draining or Gaining? The Social Networks of Public Housing Movers in Bost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009). 26(2-3):227-247.
- Andrews, R. Exploring the impact of community and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on government performance: Evidence from England.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2011), 64(4), 938-949.
- Bourdieu, P. (2011). The forms of capital.(1986). Cultural theory: An anthology, 1, 81-93.
- Coleman, J. S.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88). 94, S95-S120.
- Iravani, M. R. 「Role of Social Capital on Development」, Journal of Alternative Perspectives in the Social Sciences, (2010). 2(2): 966-978.

- Knack, S,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Evidence from the Stat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02). 46: 772-785.
- Ostrom, E., &Ahn, T. K, 「A social science perspective on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and collective action」, Revista Mexicana De Sociologia, (2003), 65(1), 155-233.
- Pollack, C. E., &Von dem Knesebeck, O, 「Social capital and health among the aged: comparis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2004). Health & place, 10(4), 383-391.
- Portes, A,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98), 24(1), 1-24.
- Putnam, R. D,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an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PS: Political science &politics, (1995), 28(4), 664-683.
- Hillery, G.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1955), 20:111-123.
- Robert, P,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Serageldin, I. Christn'aann Grootaert,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Partha Dasgupta and Ismail Serage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0.

서울시50플러스 2018-021

50+커뮤니티 운영 현황 분석 및 활성화 방안

발행일 2018년 12월
발행인 김영대
편집인 양안나
연구자 이서연 조규형 이주현
발행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代)
ISBN 979-11-89011-17-8(93330)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www.50plus.or.kr

